

# 雲門

불기 2554년  
가을호  
통권 제114호

雲門僧伽大學



불기 2554년 가을호 통권 제114호

# 雲門

## 목 차

호거산 윤문사	2
죽림헌	3
교수논단	4
차례법문	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12
학인논단	14
특별기고	16
사찰탐방	20
이 한 권의 책	24
선사이야기	26
想	28
끝없는 여정	30
이와 같이 들었다	32
답소	36
인도기행	38
수행의 두레박 하나	40
둘	44
윤문논평	46
윤문소식	48
모집공고	50
	51



사람이 말을 가는데  
가장 귀하다는 뜻은  
나를 찾아주는 데 있느니라  
불법은 이론이나  
사랑으로는 아는 도리가  
아니라  
허공이 가장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물을 심어 하면 우주의  
총 청을 줄 수 있겠지만  
우주의 깊이는 따로 있으느니라  
나의 법문 못 듣는 것이  
나의 암종 게느니라

만공선사법훈이경록



## 총림에 대한 한 생각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우리는 다양성의 화합 승가에서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하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다른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원래 총림(叢林)이란 '떨기 총, 수풀 림'이라 하여 풀이나 나무들이 무더기로 모여서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호거산과 운문산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서로 어울려 무성한 숲을 이루며 자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무로는 소나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은행나무, 잣나무, 천나무, 밤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회화나무, 모감주나무, 자귀나무, 후박나무, 목련, 향나무, 계수나무, 호랑가시나무, 벚나무, 노각나무, 싸리나무, 가죽나무, 감나무, 모과나무, 매화나무, 호두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보리수나무, 단풍나무, 박달나무, 물푸레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생강나무, 산수유나무, 병꽃나무, 고로쇠나무, 도토리나무, 옻나무, 취똥나무, 산벚나무, 산초나무, 이팝나무, 목수국, 범사나무, 조팝나무, 대추나무, 엄나무, 조파나무, 등나무, 개옻나무, 산목련, 배롱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름과 크기,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줄기의 곧고 굽음, 단단함과 연함, 이파리의 크기, 꽃이 피고 지는 시기나 모습, 열매가 맺고 떨어지는 시기, 빛깔, 모양, 효능, 쓰임새 등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여 키가 크고 곧게 자라는 나무가 키가 작고 굽은 나무에게 '너는 왜 나처럼 키가 크고 똑바르게 자라지 않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나처럼 예쁜 꽃을 피우지 못하느냐?"라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나는 단단한데 너는 왜 약하느냐?"라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울창한 나무숲은 모든 새와 짐승, 벌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서로서로 어울려 품어주고 살려주며 무성한 나무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숲은 다양성을 가지고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나는 이 나무숲을 보면 화합 승가가 떠오릅니다.

승가에서는 많은 출가자가 함께 모여 수행하는 곳을 총림이라 합니다. 요즈음은 강원, 선원, 율원이 갖추어진 곳을 총림이라고 하지만, 많은 스님이 한곳에 모여 화합하며 수행하는 곳은 모두 총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운문사는 강원과 선원, 율원을 다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이 함께 모여 화합하며 살고 있으니 총림인 셈입니다. 이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각자의 성과 이름, 태어난 곳이 다르고, 얼굴 모습과 빛깔, 성격, 생각, 능력, 취미, 재능, 소임 등이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화합 승가를 이루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계율에서는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가장 무거운 5역 죄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승단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성의 화합 승가에서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하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다른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치 산에 나무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무성한 숲을 이루듯, 승가도 다른을 수용하고 화합된 총림의 모습으로 살 때 부처님의 법이 오래도록 융성하게 빛날 것입니다. ●

## 초기 불교의 이해 Ⅲ

호진 스님 / 기림사

\*본 고(稿)는 운문승가대학 특강 자료입니다.

### 목 차

1. 초기 불교
2. 봉다의 생애
3. 경전의 성립
4. 봉다가 발견한 진리 : 연기법
5. 사성제
6. 오온 - 무아
7. 윤회
8. 업과 파보

### 5. 사성제

사성제(四聖諦)라는 말은 '네 가지의 신성한 진리'라는 의미이다. 사성제는 불교의 모든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봉다가 녹야원에서 다섯 제자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했을 때부터 꾸시나가라에서 반열반에 들 때까지 45년 동안 제일 많이 설한 가르침이다.

중야함의 『상적유경(象跡喻經)』에서는, '비록

한량없는 선법(善法)이 있다 해도 그 모든 법은 다 사성제에 포섭되어 사성제 가운데 들어온다. 그래서 사성제를 일체 법에서 제일이라 한다.'라고 사성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를 들고 있다. '모든 짐승의 발자국 가운데서 코끼리의 발자국을 제일로 삼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짐승의 발자국 가운데서] 가장 넓고 크기 때문이다.'(제7권, 30경)

사성제의 가르침은 불교의 궁극 목표인 '고(苦)에서의 해방'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교리이다. 봉다는 인생의 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의사가 먼저 병을 진단하듯이 봉다는 인생의 고의 실상을 파악했다 [苦聖諦]. 그다음 병의 원인을 찾아내듯이 고의 원인을 규명했다 [集聖諦]. 그리고 나서 병의 치료 후 건강상태를 말하듯이 고가 소멸한 상태 즉 열반을 설명했고 [滅聖諦], 끝으로 의사가 치료방법을 말하는 것처럼 봉다는 고에서의 해방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 [道聖諦].

#### 1) 고성제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살아간다는 것은 고이고, 이 고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봉다는 이것을 '나는 단지 고와 고의 소멸 [涅槃]만을 가르친다.'(잡야함 965경 外) '모든 바닷물은 오직 한 가지 맛, 즉 짠맛이다. 나의 가르침 [法과 律] 역시 오직 한 가지 맛, 즉 해탈[ 열반 ] 맛이다.'(중야함, 35경)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선비구경(那先比丘經)』에서는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왕이 전쟁하기 위해 4종의 군대(象, 馬, 車, 步兵)를 일으킬 때 오직 한 가지 계획만 가지고 있다. 즉 적군을 공격해서 무

찌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교경전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오로지 모든 고[惡]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것이다.'(대정장 32권) [의학의 모든 것이 병과 건강에 관한 것인 것처럼.]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고(苦)란 무엇인가. 고를 일반적으로 '괴로움', '고통', '슬픔' 등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다. 불완전, 무상, 무아, 공과 같은 개념도 이 고에 해당한다. 고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괴로움을 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일체개고(一切皆苦)'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 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생, 노, 병, 사의 4고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愛別離苦],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怨憎會苦],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求不得苦], 육체가 번성함에서 오는 괴로움[五陰盛苦]의 4고를 합하여 8고로 나타낸다.

또한, 고를 성질상으로 설명해서 고고(苦苦), 괴고(壞苦), 행고(行苦)의 3고로 나누기도 한다.

고고란 추위, 배고픔, 부상을 당했을 때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말한다. 이것은 원래부터 괴로움의 조건에서 생기는 고다. 괴고는 애착이 있는 대상이 파괴될 때 느끼게 되는 괴로움을 말한다. 부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릴 때 느끼게 되는 괴로움 또는 아름다운 꽃이 질 때 느끼는 슬픔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고란 무상함을 조건으로 해서 느끼게 되는 괴로움이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쉴 사이 없이 변하고 있는 현실[노, 병, 사] 앞에서 느끼게 되는 괴로움이다.

#### 2) 집성제

집(集)이란 '초집생기(超集生起)'에서 나온 말로서 '발생'을 의미한다. 이 집제에서는 고의 '발생원인'을 밝힌다.

고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욕망(trsna)이다. 오관의 관능적인 욕망은 물론이고, 재산과 권력에 대한 애착, 사상, 신앙에 대한 집착 등도 욕망에 해당한다. 봉다에 의하면 인생의 모든 불행, 싸움, 괴로움은 이 욕망에서 비롯된다. 욕망은 고의 뿐만 아니라. 경에서는 이것을 '고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욕망이다.', '무릇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모두 다 욕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욕망은 인생을 이끌어 가는 동력(動力)일 뿐 아니라 인생을 지배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욕망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욕망은 우리를 주인이 노예를 부리듯 마음대로 부린다. 봉다는 이것을 '세상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인도되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는다. 욕망이야말로 모든 것을 예속시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욕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그렇다고 해서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욕망은 채워주면 줄수록 더 커질 뿐 결코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경에서는 '비록 여기에 저 히말라야 산 만한 숲금 덩어리가 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그 금을 얻는다 해도 오히려 만족할 줄을 모를 것이다.', '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으리라.'(법

구경 186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욕망에는 욕애(欲愛), 유애(有愛), 무유애(無有愛)가 있다. 욕애란 5욕, 즉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애욕을 말한다. 유애란 존재에 대한 욕망이다. 영원히 살고 싶다든지 죽은 후에도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등의 욕망이다. 무유애는 허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리킨다.

### 3) 멸성제

멸(滅)이란 열반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열반은 범어의 Nirvāna를 음역한 것이다. 열반은 '소멸'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고가 소멸한 상태'를 가리킨다. 고가 완벽히 없어진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에서의 완전한 해방'이다. 현대 개념으로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열반은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이상이다.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리와 방법은 열반을 얻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한 경에서는 '캔지스 강이 바다로 향하는 것처럼, 고타마[부처님]의 교단(출가이든 재가이든)은 열반으로 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열반은 현재의 생에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괴로움, 즉 정신적인 괴로움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육체는 남아 있으므로 육체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에 성취하는 열반을 '생존의 근원[육체]이 남아 있는 열반', 즉 유여의열반(有餘依涅槃)이라 한다. 그리고 이 유여의열반을 이룬 사람이 죽게 되면 윤회를 하지 않게 되므로 '생존의 근원이 남아 있지 않은 열반', 즉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에 들어가게 된다. 이 무여의열반은 완전한

열반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고가 존재하지 않는 열반이다. 반열반(般涅槃, parinirvāna)이라고도 한다.

열반은 우리가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열반은 체험의 세계일 뿐이다. 열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열반을 설명해 주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마치 땅 위에 올라가서 산책하고 온 거북이가 물고기에게 땅 위에서는 헤엄칠 수 없다고 설명을 해주어도 물고기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 4) 도성제

도(道, mārga)란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은 '중도(中道)'라고도 불리는 길이다. 중도란 양극단(兩極端)을 떠난 상태를 말한다. 즉 지나친 쾌락적 행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그 중간의 행을 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중아함 204경)

『소나(Sona)경』에서는 중도를 거문고 줄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 즉 거문고 줄은 지나치게 팽팽해도,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느슨해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다. 거문고가 가장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줄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열반을 위한 수행의 길도 지나친 고행이나 낙행을 피하고 적당한 상태의 길인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8정도(八正道)이다.(잡아함 254경; 중아함 123경)

(1) 정견(正見) - 바른 견해이다. 불교의 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으로서 연기법과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2) 정사(正思) - 바른 생각이다. 탐욕이 없는

생각, 성념이 없는 생각, 해침이 없는 생각이다.

(3) 정어(正語) - 바른 말이다. 즉 거짓말(妄語), 이간시키는 말(兩舌), 욕하는 말(惡口), 아첨하는 말(綺語)을 하지 않는 것이다.

(4) 정업(正業) - 바른 행위이다. 산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不殺生), 도둑질하지 않는 것(不偷盜), 음란한 짓 하지 않는 것(不邪淫)이다.

(5) 정명(正命) - 의복, 음식, 와구(臥具), 약 등을 법답게 구하는 것이다.[바른 직업. 다른 존재들을 해롭게 하는 직업을 피하는 것. 특히 무기, 술, 독약 등의 장사나 도살업, 사냥업 등을 하지 않는 것.]

(6) 정정진(正精進) - 바른 노력이다. 꾸준히 힘써 번뇌를 떠나려 하고, 부지런하고 조심하여 항상 물러나지 않도록 행하는 것이다.

(7) 정념(正念) - 생각을 따르고 잊지 않으며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삿된 생각-사념-을 버리고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데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8) 정정(正定) -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하여 굳게 거두어 가지고 삼매에 드는 것이다.(잡아함 787경; 중아함 189경)

## 6. 오온(五蘊) - 무아(無我)

5온(五蘊)의 온(蘊, skandha)은 '모임' [集合, 積集] 또는 '유별' (類別: 종류별로 나누어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때로는 '음(陰)'이라고도 번역되었다. 현대적인 용어로는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要素)'라는 말이다. 따라서 5온이란 '다섯 가지 요소'라는 의미이다. 인간 존재는 하나의 육체적인 요소, 즉 색(色)과 4가지의 정신적인 요소인 수(受), 상(想), 행(行), 식(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5온이란 인간 존재

의 다른 이름이다.

### 1) 색(色, rūpa)

육체를 가리킨다. 우리의 육체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는 뼈, 손톱, 머리카락 등 육체의 딱딱한 부분이다. 수는 침, 혈액, 오줌 등 액체부분이다. 화는 체온이고, 풍은 몸속의 기체, 즉 위장 속의 가스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인간의 육체는 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이다.

### 2) 수(受, vedanā)

모든 감수작용(感受作用)과 거기에서 얻어진 감정 자체를 말한다. 육체적으로 받는 괴감과 불쾌감, 그리고 정신적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가리킨다. 수를 성질상으로 고수(苦受), 낙수(樂受),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의 세 종류로 나눈다. 불고불락수는 사수(捨受)라고도 하는데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감정을 가리킨다.

### 3) 상(想, samjñā)

개념(概念)과 표상(表象)을 만드는 작용과 만들어진 개념, 또는 표상이다. 붉은 꽃일 경우 '붉다', '꽃이다' 등과 같이 대상의 성질을 인식하고 그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정신기능과 거기에서 얻어진 정신적인 현상이다.

### 4) 행(行, sāṃskāra)

수, 상, 식을 제외한 모든 정신작용과 그 현상이 행(行)에 해당한다[推理, 熟考 등]. 특히 의지작용(意志作用, cetanā)을 가리킨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선, 악의 윤리 생활을 할 수 있고 업(karma)을 짓게 되는 것은 이 행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 5) 식(識, vijñāna)

식은 일반적으로 분별(分別), 판단(判斷), 인식(認識)이나 그 작용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식의 영역은 대상을 인식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그전 단계인 주의작용(注意作用)이다. 예를 들면 붉은 꽃을 볼 때 안식(眼識)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식은 눈앞에 '무엇이' 나타난 것만을 알 뿐이다. '꽃이다', '붉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식(識)의 작용이 아니고 상(想)의 작용이다.

인간 존재란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온 교리이다. 『잡아함(45권, 1202경)』에서는 이것을 '마치 여러 가지 재목(材木)을 한데 모아 세상에서 수레라 일컫는 것처럼 모든 온[要素]이 모인 것을 거짓으로 존재[衆生]라 부른다.'라고 비유로써 설명하고 있다. 수레는 바퀴, 차체(車體), 축(軸) 등 여러 요소가 모였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게 되지, 이 요소들과 관계없이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다. 인간 존재도 마찬가지다. 색, 수, 상, 행, 식의 다섯 요소가 모일 때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도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잡아함 3권 71경; 同 2권 45경)

5온 교리에 의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고정 불변적이고 실체적인 영혼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수, 상, 행, 식과 같은 정신작용은 소위 말하는 영혼과 같은 존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기관과 그것에 관계가 있는 대상과의 만남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마음 [意: 생각을 맡은 기관] 등과 여기에 상응하는 물질(色), 소리(聲), 냄새(香), 맛(味), 감촉할 수 있는 것(觸), 생각(法) 등이 서로 만날 때 안식(眼

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등의 여러 가지 정신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根)과 그것에 대응하는 여섯 가지 대상(六境)이 합쳐질 때 여섯 가지 식(六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수성유경(手聲喻經)』에서는 '비유하면 두 손이 화합하여 서로 마주쳐 소리를 내는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이 눈(眼)과 물질(色)을 인연하여 안식(眼識)이 생긴다.[다른 5식도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5온 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존재는 5온(5가지 요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들 각 요소는 어느 것도 실체(實體)가 없다는 것이고, 실체가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가 어떻게 실체적인 존재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 경전에서는 비유를 들어 색은 거품 냉어리 같고, 수는 거품 방울 같고, 상은 신기루 같고, 행은 바나나 줄기 같고, 식은 허깨비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잡아함 27권 35의 9: 잡아함 265경) 거품 냉어리, 거품 방울, 신기루, 바나나 줄기, 허깨비는 어느 것 하나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 실체가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진 존재가 실체적인 것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아(無我, anātman)라고 표현한다. 이 '아(我)가 없다.'라는 말에서 '아'란 '고정 불변하는 실체적인 아'를 의미한다. 인간 존재에는 그와 같은 '아'는 없다는 것이고, 역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은 '무아적인 존재'이다.

이 5온 이론, 즉 무아 이론은 초기불교에서 후기불교까지 전 불교사상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를 다른 종

교 및 사상과 구별 짓는 가장 독특한 교리이다. 초기 경전에서 봇다는 이 무아 교리를 수없이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붓다에 의하면 고는 욕망 때문에 생기고 욕망은 '아(我)가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고의 근본 원인이다. 그러므로 '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제거되지 않는 한 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뿌리가 다치지 않으면 나무는 설사 [윗부분이] 잘리더라도 원기 왕성하게 다시 쪽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고도 계속 발생한다고 『법구경(法句經)』에서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제24장, 338偈)

'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존재 속에 아뜨만(ātman, 我)과 같은 실체적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데서 생긴다. 따라서 아뜨만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은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전에서는 우리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우리 존재가 '무아적(無我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아'도 없고 '아소(我所, 나의 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에 집착할 것이며 누구에게 분노를 품을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겠는가. 이것은 봇다와 빛사(Tissa) 비구 사이에 있었던 문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봇다는 빛사 비구에게 "만일 육체(色)에 대해서 탐냄을 떠나고 욕망을 떠나고 생각을 떠났는데도 그 색이 변하거나 달라지면 그때 너는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생기겠느냐?"라고 묻는다. 빛사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수, 상, 행, 식 등 다른 4온에 대해서도 같은 문답을 한다.(잡아함 10권 271경)

'아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깨지면 우리는 우리 존재가 변해도 외부세계가 변해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숲 속의 나무들을 베어서 가져가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은 아(我)도 아니고 아소(我所,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함경에서는 무아 교리를 불에 비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이 모든 초목을 태워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무아 교리는 욕망과 고를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일아함 31권 10경)

봇다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무아 교리를 실천하라고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 때로 그것은 과격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봇다의 가장 큰 제자였던 사리뿌뜨라(舍利弗)는 야마카(Yamaka) 비구에게 5온[인간 존재]은 '병(病)과 같고 종기(腫氣)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죽음과 같으며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空)이고 아가 아니며 내 것(我所)이 아니라고 판찰한다.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체적인] 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마침내 고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잡아함 104경; 同 110경) ●

〈다음 호에 계속〉

## 마음의 불씨

혜고 / 사미니파

200여 년 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가 세운 나라 미국. 미국이 그 화려한 물질문명을 꽂아우며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하기까지는 합리주의와 기능주의가 뒷받침되었으며 그 사상적 모태는 기독교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계통의 백인 기독교도가 주류를 이루는 이 나라에 요즘 불교 바람이 불면서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하고 있음을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하겠습니다.

불교가 처음 미국에 소개된 것은 1844년 「웰든(숲 속 생활)」의 저자인 소로우가 불어판 「법화경」의 일부를 번역하여 「다이얼지」에 게재하면서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미국사회에 알려진 것은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종교회의」에서 일본의 선승 「샤쿠 소엔」과 스리랑카의 「아나가리카」의 공식연설을 통해서입니다. 미국인 최초의 불자는 변호사이며 철학자인 「헨리 스틸을 켓」인데 그는 불교와 브라만교의 신비주의를 결합한 「신지학회(神智學會)」를 창립하여 현대불교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 후 미국인으로서 처음 불교에 입문한 슈트라우스에 이어 미국불교는 단 1세기만에 불교학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불교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전파된 것은 필라델피아 템플대학에서 「조당집」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경보 스님이 1964년 미국에 정착한 것을 기점으로 삽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 한국불교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미국인들 사이에서 생불로 추앙받았던 승산 스님에 의해서입니다. 승산 스님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에 흥법원을 개원하고 미국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불법을 전하여 현지인들을 귀의케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2천여 명의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74년 동국대 부총장을 역임했던 법안 스님이 뉴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인들을 위해 포교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중심지인 뉴욕에 불교대학 설립의 원을 세우며 원각사를 운영,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며 그 뜻을 이를 즐음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전법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이 일은 뉴욕불교계에 큰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불교대학을 설립하고 인재양성의 원을 이루었다면 미국 내 한국불교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입

적하고 안 계시지만 그분들의 「마음의 불씨」가 월동력이 되어 오늘날 미국 내 한국불교가 자리할 수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120년, 한국불교는 50년이 된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불교 봄」은 무엇인지, 뉴욕을 중심으로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인 뉴욕의 예술가들은 서구적인 것에 신물을 느끼며 동양적 신비주의 사상과 선 사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구적인 기독교 중심의 물질주의 사상에 한계를 느끼며 거기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불교의 선 사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주류층에 속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는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참선을 해야 하고, 둘째는 동양의 음식(한·중·일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하고, 셋째는 젓가락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식당이나 일식집에 가면 젓가락질을 하는 현지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TAO(유교 또는 도교)라는 레스토랑은 실내 장식으로 커다란 부처님상을 모셨으며, 채식주의자를 위한 아채메뉴에는 봇다 스페셜(Buddha Special)이라 이름을 붙이고, 심지어 디저트 메뉴에는 봇다 딜럭스(Buddha Deluxe)와 부처님 모양의 초콜릿을 24개 한 상자에 담아 놓음- 봇다 아이스크림(Buddha Ice Cream)-부처님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뉴욕키」라 불리는 맨해튼의 젊은이들과 백인 주류층들에게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인기메뉴에 속합니다.

또한, 미국 상류층들의 항유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주말파티를 즐기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부의 상징은 그 개념이 변하여 지인들끼리 명상지도자를 초청, 정신세계를 향상하는 소그룹활동을 하는 등의 정신적 웰빙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교 바람은 미국정치 「컨셉의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기독교 중심의 물질주의가 그동안 미국이 누렸던 강대국으로서의 부를 더 이상 누리게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치계획을 세우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계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미국을 어떤 정신에 근거하여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불교를 대안 종교로 세우는 것임입니다. 불교가 지니고 있는 자비와 평화 그리고 지혜의 정신만이 미국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은 불법을 전하기 좋은 「횡금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어를 낚을지 피라미를 낚을지 아니면 그 주위를 맴도는 주변인으로 남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라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과연 이 시대에 바람직한 승가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참구해야 하겠습니다.

“승중즉법중이고 승경즉법경(僧重則法重 僧輕則法輕)이다. 승이 소중해지면 법도 소중해지고 승이 업신여김을 당하면 법도 천시를 당하게 된다.”

대중스님! 세세생생 영원한 자유인이 되시길 마음 깊이 발원합니다. ●

## 제39회 동문회, 그날을 추억하며

일진 / 운문승가대학 학감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워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간·출세간 둘이 아닌 분상에서야 그리운 것�이나 추억할 것이 따로 없겠지만, 순수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그리워지는 것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로서 진정 그리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스승님이시며 도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순간 이미 입적하신 은사 스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학인 스님들은 지금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얼마 전 운문 도량에는 오랜만에 스승님, 도반, 선배, 후배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정겨운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여가도 없이 바쁘게 지나고 나니 너무 이쉽고 서운함만 남은 모임이기는 했지만, 저의 생애에 길이 추억될 뜻깊은 동문회 날이었습니다.

2010년 9월 27일 오후 2시, 정각부터 시작된 동문회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동문 회장스님(17회 행법 스님) 인사, 학장 스님 환영사, 강주 스님 말씀, 주지 스님 인사, 특히 학장 스님께서는 동문 중에 좋은 책

을 써서 우수도서로 선정된 『청규와 茶』의 저자 29회 수인 동문 스님에게 포상까지 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안건토의는 재무 스님의 제정보고와 동문회 활성화 방안을 밝히는 정도로 신속하게 끝나고, 2부 순서로 진행된 학장 명성 스님 운문사 주석 40주년을 기념하는 자서전·법문집·서간집 출판기념 겸 봉정식을 봉행하게 된 일입니다.

학장 스님의 간곡하신 만류로 외부인사는 초청하지 않은 채 동문회원 중심으로 조촐하게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비구니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비구니회 임원 스님네가 특별히 임석해 주셔서 봉정식 자리는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행사는 스님 개인은 물론 비구니 교육의 중심도량인 운문사의 영광이고 역사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것이라고 했던가요? 그리고 보니 초창기부터 39회째의 총동문회를 추억하며 이렇게 학인 스님들에게

그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도 강한 사람 중의 하나인 셉입니다.

후원에서는 공양 준비하랴, 행사장 주변에서는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며 대기하느라 직접 참석하지 못한 학인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그날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세간에서는 혼히들 말합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특허'가 힘이며 지원이고, 문화 분야에서는 '시원(始原), 발원지(發源地)'가 가장 유력한 역사성을 발휘하고 동·식물학에서는 '종자·씨앗'이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인간·사람에게는 무엇이 힘이고 지원이며 역사가 될까요? 옛말에 「이름」이라고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등의 말이지요. 그러나 그 이름이 이름 되게 하는 것은 역시 인품, 품성일 것입니다. 성품, 즉 그 마음을 어떻게 쓰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품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나 삶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고 후대인의 삶에 힘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학장 스님께서 비구니회 회장에 취임하신 후, '세계여성불자대회' 등 세계 곳곳의 국제행사에 자주 참석하시게 되었고 그때마다 한국불교, 특히 한국 비구니계, 여성 불교를 대표하는 분의 삶과 사상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학장 스님에 대한 자료가 꼭 필요함을 절감한 제자들은 스님의 행적을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하여 남겨두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종교를 초월하여 인간의 삶과 한 여성의 삶에 큰 지원이며 힘이고 역사가 될 것임을 굳게 믿고 발원하며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서전(평전)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인터뷰 녹음을 하였고, 각종 행사에 축사, 법문, 인사 말씀, 신문기사 등의 자료는 법문집으로, 제자와 어른 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편지는 서간집으로 분류하여 스님의 수행, 스님의 교육사상을 3권 한 절로 완성하여 그날 법계당 명성 학장 스님 법문집 등의 봉정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은 언제 편지를 주고받으며 제자를 추천하고 잘 키워 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참 희유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님의 서간집을 읽으면서 아주 새삼스럽게 오랜 세월의 깊이와 알 수 없

는 풍클함. 그리고 따뜻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운문 도량의 학인 스님! 때로는 힘들고 하늘 한번 바라볼 여가도 없이 바쁜 일정 속에 살고 있지요. 수행은 삶이고 삶은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쁜 것도 습관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긴장하면서도 편안함을 아주 깊이 숙이고 결손하면서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은 행복한 수행입니다. 학장 스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매사에 진실하라(眞實而眞). 그리고 늘 현재, 지금을 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의 지금을 느껴야 하는 순간에 이미 현재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행위 자체에도 늘 깨어 있는 훈련을 계속 반복했을 때만이 점점 익어서 즉, 습관 되어서 나 자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39회째의 동문회와 함께 학장 스님께 스님에 관한 책을 봉정해 드리는 날을 지내고 어느덧 40여 년의 그 처음으로 돌아가 그 시절의 일들까지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스님께 한 수의 티를 올리며 그날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화향기 퍼지는 시방 저 끝에  
고현한 그 모습 후박의 어머니  
천일홍이 천 날로 무로익을 때  
옥수의 손짓으로 달빛 아래 모으시고  
속진의 모든 번뇌 은하수로 씻어주시네  
별빛이 내리는 청초한 새벽  
두 손 모아 비시나니 일심의 소망  
불티의 크신 교해 널리 퍼져지이다  
한 틀잎의 기운도 눈여겨 살피시어  
무정의 어버이로 틀잎에 군림하시나니  
하늘에는 다시 푸른 강물이 흐르고  
목련의 흰 이미는 이슬로 고개 숙여  
잎이 펼 그날까지 들을 줄을 모릅니다  
사십 년 전 세월을 어찌 빛 그대로  
진리를 이로시는 운문의 보좌  
절망진 그대들은 당신의 분신  
시방으로 삼세로 영원하시나니  
취취의 연잎 위에 당신은 미소하시고  
이 자리 여덟 날 어찌 있으리오  
법체의 크신 자비 만세로 향기로우소서!

## 유식 삼성으로 깨달음을 이해하기 Ⅱ

- 연기(緣起)와 현상계 존재에 대한 고찰

이진 / 대교파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유식 사상의 삼성
  - 가. 원성실성(圓成實性)
  - 나. 의타기성(依他起性)
  - 다.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3. 연기로서의 삼성
4. 현상계 존재로서의 삼성
5. 깨달음을 삼성으로 정의
6. 맷음말
7. 참고문헌

### 4. 현상계 존재로서의 삼성

가. 현상계 존재에 대한 불교적 입장

#### 1) 유부 아비달마의 견해

『잡아함경』에서 생문 바라문이 '일체(一切)'에 대해서 묻는 말에 부처님께서는

일체란 12입처(入處)이니,  
안(眼)과 색(色)…… 의(意)와 법(法)  
이것이 바로 일체이다.<sup>1)</sup>

라고 하셨다. 이 말은 일체(一切)란 주관의 자아와 객관의 세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설일체유부는 어떤 사물을 인식의 개별적 대상 또는 능력으로 볼 수 없다면 실재(實在)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즉 안근(眼根)과 색법(色法)을 근거로 하여 안식(眼識)이 생기고 이 셋이 화합하는 것을 촉(觸)이라 하며, 촉은 수·상·사(受·想·思)를 놓게 되니<sup>2)</sup> 인간의 일체 경험세계는 5온(蘊)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며 자아라는 것도 이 같은 경험을 통해 확인될 뿐이다.

위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설일체유부에서는 현상계의 일체를 유(有)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념적 존재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실용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개념적 구체화를 통해 그 개체성이 결정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식(識)의 객관적 대상인 색법(色法)을 일체 존재 가운데 가장 먼저 열거하는 것도 의식이 대상에 의해 규정되는 아비달마 불교의 특징 때문에 일 것이다.

유정(有情)이 사는 이 세계[기세간(器世間)]를 아비달마는 공업(共業)<sup>3)</sup>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각자의 공통 에너지가 같은 세계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지어 보면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우리가 이 세계에 공존하는 인(因)은 공업(共業) 때문이라고 하며 이 현상계의 존재는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개념 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인식 주체인 식(識)이 감

각기관과 대상에 수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세계를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 2) 유식의 견해

유식에서는 일체불리식(一切不離識)이라 하여 일체(一切)가 식(識)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사물은 단지 감각기관의 산물인 마음속의 영상(映像)이라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일수사견(一水四見)이다. 사람은 물이라 생각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천인(天人)은 유리로 된 대지, 지옥에 있는 자는 고름으로 찬 강, 물고기는 집이나 길로 본다는 것이다. 즉 감각기관을 통해 마음속에 지어낸 온갖 영상은 업력에 따라서 다각각 다르게 보지만, 그 실체는 허깨비와 같아서 진실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물을 다른 사람들 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증상연(增上緣)<sup>4)</sup>이다. 타인의 식이 변화한 것[타소변(他所變)]은 자기의 식이 변화하기[자소변(自所變)] 위한 증상연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유식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기세간은 서로의 마음속에 있으 면서 서로의 기세간이 증상연이 되어 관계한다.' 라고 설명한다. 즉 기세간은 유정의 업이 가진 증상력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식에서 설명하는 기세간은 오직 우리의 식(識)이 만들어낸 흰영(幻影)일 뿐이다.

#### 나. 삼성(三性)에 의한 설명

그렇다면 삼성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원성실성'은 이미 성취되어 완벽하다. 따라서 생멸하는 일이 없다. '일

수사견(一水四見)'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실제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진여의 세계가 우리의 육문(六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을 지나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즉, 인간의 눈에만 물로 보이는 것이다. 이 과정이 의타기성이다. 우리가 가진 증상연(增上緣) 덕분에 같은 것을 보지만 실제로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상(相)을 짓는지는 지극한 수행력이 아니면 보기 어렵다. 비유하자면 1캐럿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가 불에 들어가면 완전히 타버리는 탄소덩어리일 뿐이지만 누가 다이아몬드를 시커먼 석탄과 같다고 생각하겠는가? 탄소에 얼마만큼의 압력과 온도가 가해지는가에 따라 난방 연료로 쓰이는 석탄이 되기도 하고 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진여가 우리의 육문(六門: 우리의 경험, 아뢰야식)을 의타기성으로 하여 허망 분별인 변계소집을 일으킨다.

『유마경』에는 사리불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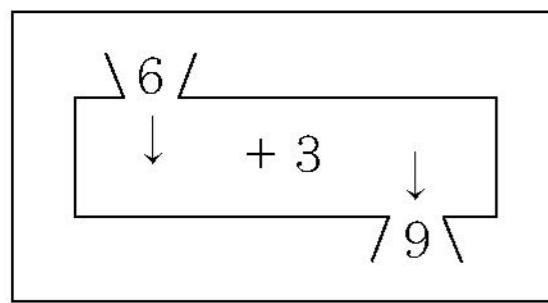
..... “마음이 얼마나 청정한가에 따라 보살의 불국토도 그만큼 청정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석가세존의 경우 보살행을 그만 끌었는데도 ..... 세존께서 머물고 계시는 이 불국토가 이처럼 부정하게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 세존께서 사람들이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것을 아시고 이 삼천대천세계 위에 가만히 빌가락을 올려놓으셨다. ..... “사리불이여, 불국토가 이처럼 온통 공역으로 장식된 광경을 그대는 보고 있는가?” ..... “보고 있습니다. ....

1) 『잡아함경』 권제13 제319경  
2) 『잡아함경』 권제16 제459경  
3) 『기세경(起世經)』 제1권 ‘…일체 세간은 저마다 업의 힘을 따라 나타나 일어나고 성립되기 때문이다…’  
자타가 공동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을 공업(共業)이라 한다.

4) 증상연(adhipati pratyaya)의 증상에 해당하는 adhipati는 원래 힘 있는 왕이나 지배자를 뜻한다. 증상연은 타자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원인이 된다. 모든 현상이 결과인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모두 원인이 되는 것. 증상연에는 유력(有力) 증상연과 무력(無力) 증상연의 두 가지가 있다. '유력 증상연'은 다른 현상이 생기는 데 직접 힘을 주는 원인으로서 씨앗에 대하여 온도, 비 같은 것이고, '무력 증상연'은 다른 현상이 생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원인으로서 씨앗에 대하여 폭풍, 열음이 없는 것 등이다. 유력 증상연은 여력(與力) 증상연이라고 하며, 무력 증상연은 부장(不障) 증상연이라고 한다.

이 기세간이 사리불에게는 예토(穢土)로 보였지만 봇다에게는 정토(淨土)로 보인다.<sup>5)</sup> 봇다와 사리불은 같은 세계를 보지만 의식에 비친 상(相)은 아주 다르다.

왜 현상세계는 무상한가? 연(緣)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배운 연산 상자를 기억해보자. 어떤 수를 넣어도 '+3' 연산 상자에 넣으면 3이 더해져서 나온다. 6이 6으로 나오지 않고 9가 되는 것이다. 연(緣)은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도 하고 6을 9로 만들기도 한다.



이 현상세계조차도 우리는 변계소집에 사로잡혀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 유마경에 의하면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이 현상계의 모습도 공덕으로 장식된 불국정토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곧 의타기를 닦는 것이며, 의타기를 닦는 것이 또한 우리의 수행인 것이다.

## 5. 깨달음을 삼성으로 정의

'삼법인(三法印)' 중 '제행(諸行)<sup>6)</sup>'이 무상(無

常)하다.'라는 것은 일체 모든 존재는 유위(有爲)로써 인과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소멸하면 함께 따라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는 하지만 진여(眞如) 자체는 완전히 성취되어 원만한 것이라 부증불감(不增不減)이므로 무상(無常)하지 않다.

흔히 우리는 무상(無常)하다는 것이 변화나 소멸의 의미로 이해하지만, 이는 범부(凡夫)의 기준일 뿐이다. 무상(無常)은 완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완전함'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상태이므로 양변(兩邊)을 여읜다. 그 상태로 손댈 것도 이해되지 않음도 없다.

단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연(緣)'이 되는 '의타기'가 작용하면 조건이 생기게 되므로 실재(實在)와는 다른 형상이 나타나면서 '변계소집'이 생긴다. 즉 조건이 사라지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조건이 사라지는 것을 무상(無常)이라 하니 '진여(眞如)'의 상태에는 무상(無常)도 상(常)도 볼일 것이 없다.

「바차고타 화유경」<sup>7)</sup>에서 봇다는 해탈에 대해 이런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불은 왜 타고 있으나고 물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것은 나무가 있으니까 탈 것입니다.”

“…… 그 불은 나무가 있으니까 탔던 것이요,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꺼진 것뿐이며, 꺼진 불이 어디로 갔느냐는 물음은 빗나간 질

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해탈은 연(緣)이 사라지는 것일 뿐 새로운 상태가 아니다.

깨달음은 깃다르타가 부처가 되는 순간처럼 지금의 상태가 변계소집임을 알고 수행하여 원성실성을 보고 의타기성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이다. 바로 연기(緣起)를 깨닫는 것이다.

## 6. 맷음발

『선가귀감(禪家龜鑑)』에 '修行之要是 但盡凡情 이언정 別無聖解니라.'라는 말이 있다.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지 범부의 망정을 다할 뿐 따로 성인의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육문(六門)을 거칠 때 내가 가진 인(因)과 연(緣) 때문에, 다시 말해 의타기 때문에 진여(眞如)를 알지 못할 뿐이다. 마치 같은 탄소지만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나타내므로 탄소는 보지 못하고 나타난 상(相)에만 집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깨닫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한다. 무엇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떤 인(因)과 연(緣)이 나의 번뇌를 지어내는가를 보아야 한다.

수행(修行)이란 출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行)을 닦는다는 것은 업(業)을 닦는 것이다. 업(業)을 닦는 것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단속하는 것이다. 삼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번뇌는 자(自)와 타(他)를分辨하는 것에서 오므로 오직 마음에 집중하여 의타기(依他起)를 보는 것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처럼 유식 삼성은 우리의 심리상태를 명료하게 나타내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개념일 뿐인 변계소집이다. 하지만, 변계소집이 의타기에 의해서 일

어난 것을 알고 바로 볼 수 있으면 원성실성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의타기가 청정하면 변계소집과 원성실성의 거리는 매우 좁아진다.

여전히 수행은 자신의 뜻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성취했음에도 의타기라는 군더더기 때문에 변계소집을 일으켜 무지(無知)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해오(解悟)로 아는 것만으로도 정각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얇은 식견으로 쓴 글이지만 어려웠던 유식 삼성의 개념을 실제 각자의 수행에 적용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7. 참고문헌

- 다케무라 마키오 저/ 정승석 역/ 유식의 구조/ 민족사
- 요코야마 코이치/ 장순용 역/ 유식이란 무엇인가/ (주)도서출판 세계사 1996
- 마스터나 후미오/ 이원섭 역/ 불교개론/ 현암사 2009
- 폴 윌리엄스(Paul Williams), 앤서니 트라이브(Anthony Tribe) 저/ 공만식 역/ 인도불교 사상사 /씨아이알/
- 권오민 저/ 아비달마불교/ 민족사
- 유마경
- 해심밀경

5) 「유마경」「불국품」

6) 제행의 제(諸, sarva)는 '일체', '모든'의 뜻이고, 행(行, samskara)은 sam이라는 '함께', '모여서'라는 말과 kara라는 '반둔다', '행한다'는 의미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 '함께 모여 만들어진 것', '지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어떤 존재를 만들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무 원인과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행위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원인과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나 어떤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Sāṃkhya 철학에서는 회전하면서 그 자신을 계속 움직여 가는 수레바퀴의 상태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고, Vaiśeṣika 철학에서도 날고 있는 화살을 계속 운동 속에 머물게 하는 추진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어쨌든 그것은 '정신적 영향력, 정신적 용의(用意)의 발휘'를 지칭하며 불교 경전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다.

Frauwallner,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박태섭 역주, 원시불교, pp 145~147 참조.

7) 「중부경전」 72 「바차고타 화유경」



## 일본인의 미의식

- 미적 가치와 상징성 -

탄탄 스님 / 대덕사 주지, 동국대 강사



일본인의 미의식을 논하고자 한다면 중세 무사들의 동적인 일상을 정적으로 전환해주는 다도(茶道)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도에는 일본인의 미의식을 논함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며 지배계층인 무사들이 처한 현실적 고뇌, 이를테면 항상 죽음 또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일상이 늘 맞닿아 있는 무사에게 다도는 훌륭한 삶의 양식이었다. 언제 어디서 싸움에 휘말려 일순간에 신분이나 지위를 상실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사의 일상은 늘 살얼음판이었다.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온전히 지키며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수도자의 수행처럼 고단한 삶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무사들에게 선(禪)의 예법을 접목한 다도(茶道)야말로 오(悟)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수단

이기도 하여 '다선일미(茶禪一味)' 즉 차와 참선이 같은 맛이라고 하는 다도(茶道)가 성행하게 된다. 차노유(茶の湯)라는 일본의 다도는 16세기 센리큐(天利休)에 의해 크게 부흥한다. 그는 천하제일의 다인(茶人)으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도(道)의 경지를 추구한 리큐는 특히 와비(密)라고 하는 간소한 아름다움을 중시하여 '다선일미(茶禪一味: 다도와 선도는 하나이다.)', '화경청적(和敬清寂: 다실에서 주인과 손님은 서로 회복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다구는 조심스럽고 정결하게 다뤄야 한다.)'의 정신을 강조했다. 다도는 무사들에게 깊은 정신세계를 함양하는 일상에서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인의 미의식 저변에 가장 특이한 점은 무사들이 늘 애용하는 찻사발이나 투구와 칼 등에 새겨진 문양이다.

현대의 일본인들이 지향하는 가장 일본적인 정신이 벚꽃과 무사도 정신 그리고 다도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짧지만 무엇보다 화려한 생명력을 보이는 벚꽃처럼 무사는 늘 그러한 삶을 열망하지 않았을까 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꽃이 제아무리 아름다움을 자랑하여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인생도 화려한 청춘을 뽐내지만, 순식간에 지고 만다. 벚꽃처럼 한 치의 여유도 없이 빈틈없이 고단한 삶을 무서리 입동의 겨울로 비유한다면 춘삼월에 짧게 잠시 피워 화려함의 극치를 보이고 피는 순간에 흩날리는 눈처럼 그렇게 낙화(落花)하는 벚꽃은 인생의 무상한, 삶의 허무함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는지. 이러한 일본의 '사쿠라'는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하다.

사쿠라의 어원을 살펴보면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유력한 설이 있다. '고지기(古事記)'에 수록된 후지산(富士山) 신령인 고노하나사쿠야히메(木花開耶姫)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며, 또 다른 설은 농사 등을 관장하는 산(山)의 신을 나타내는 고어 '사(さ)'에 신이 계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쿠라(くら)'가 합쳐져 '신이 깃든 곳'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인의 미의식과 정신의 출발지는 벚꽃이라고 하여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벚꽃처럼 열정적인 삶을 동경하고 삶의 정점에서 생을 마감하는 무사도 정신처럼 어떠한 아름다운 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피운 꽃잎이, 눈부시게 피는 동시에 금세 떨어져 눈처럼 낙화하는 벚꽃의 이면에 일본인의 정신이 스며있다고 본다. 무사도가 지향하는 삶은 양보다 질이 더욱 중요로 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무사들은 일생을 후회 없이 살려고 하였으며 더욱 열정적인 삶을 살고자 갈망(渴望)하였다. 선가(禪家)에서는 현량(現量)이라는 말이 있다. 현량이란, '현(現)'은 현재, 이미 갖추어진 것이며 진실을 현현(顯現)한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직관이라 하여도 크게 어긋나는 뜻은 아닐 것이다.

일본인의 정신, 일본인의 미의식 저변에는 심미

적 직관능력이 강하다. 선종의 영향을 받은 무사와 선사(禪師), 예술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직관과 감각이 뛰어남은 냉철한 관찰을 통해 심미적 능력이 탁월하였음을.

심미는 논리 활동이 아니기에 분석과 추리가 필요하지 않다. 언제나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함에 일본의 무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전장에 말을 타고 가며 벚꽃으로 투구를 장식하는 여유로움 또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함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지 싶다. 생(生)에서 최고 절정의 아름다움은 최선을 다하고 죽음을 앞에 둔 순간이라고 본다. 일본인의 미의식은 "아름다운 사쿠라 꽃잎처럼 져라."라는 죽음의 미학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은 삶의 무상함을 설한 선종의 영향이 일본인의 미의식에 끼친 것이며 사쿠라 꽃의 시각적 미적 가치가 상징에 수반된 것이고 함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에는 '적(寂)'이란 말이 자주 통용된다. 불문(佛門)의 귀주는 '적(寂)'으로 돌아가는 진리이다. 이는 흔히 쓸쓸함이나 뒷없음 등의 뜻으로 쓰이기에 현대인들에게 와 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삶에 대한 양면적인 면을 관찰하지 않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불교 철학에 조금이라도 심취해보면 이 한 글자의 심오한 깊이에 몸이 사무치게 된다. 또한 '寂'이란 집착을 떠난 상태를 말한다. 집착이란 결국 이원적인 것으로써 집심(執心)을 의미한다. 유무에 집착하고 자타에 집착하고 동서에 집착하고 애증에 집착하는 마음의 번민을 말한다. 인생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추구한 당대의 지성들이 생명을 걸고 출전하는 순간에도 투구에 벚꽃을 장식하는 장면은 인생에 대한 집착보다 삶과 죽음으로부터 초월하려는 불교 정신의 영향이었다. 불법의 대오는 집심에서 벗어나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자재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침내 평온한 '안심', '신심의 해탈'이다. 「반야심경(般若心經)」의 '무사', '무애' 이기도 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장애도 없는 즉 유무의 이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유자재이며 융통무애의 경지가 선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불법에서 '寂'을 '靜'과 결합하여

‘寂靜’이라고 한다. 두 글자 모두 같은 경지를 응시하는 말이다. 靜도 이원의 혼란에 빠지지 않는 조용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있음과 없음이 대립하고 자타가 서로 대립하는 것은 마음에 풍파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마음에 혼돈하지 않는 것이 불법의 요체이며 안심은 조용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 「반야심경」은 ‘열반적정(涅槃寂靜)’이라는 네 글자로 나타낸다. 열반은 범으로 생멸의 이원을 벗어난 경지이다. 따라서 여기에 빠지면 삶과 죽음의 이원적인 것이 없어진다.

불법은 불멸만을 설법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반드시 ‘불생불멸’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에 동양미의 특징이고 특색이 있다. 불멸(不滅)만으로 滅에 대한 이원적인 성질을 나타낼 수 없다. 다도의 미학에서 ‘화경청적(和敬清寂)’을 주창하며 마지막에 ‘寂’의 이념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寂’의 상태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을 떠나 동양미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서양의 구분을 불문하고 모든 진정한 아름다움에는 ‘寂’의 상태가 내재되어야 한다. 일본인의 미의식 저변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치는 불교 미학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寂’의 아름다움을 ‘와비(侘び)’라고 한 이유이다.

‘와비’란 한적하며 정취가 있는 모습을 말한다. ‘사비’라고도 말하지만 원래 ‘寂’의 뜻으로 쇼후(蕉風)에서도 시대의 하이쿠 작가인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및 그 문하생의 낙풍의 하이카이\*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다. (\* 排諧譜: 排諧譜 連歌의 준말로 무로마치 말기 이후에 성행한 連歌를 말함.)

일본 중세 무사들은 다인(茶人)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다기(茶器)의 매력에 현혹되기도 하였다. 다기에는 그만큼의 매력이 있다. 그들은 그 다기로 아름다움의 보편적인 모습을 이야기했다.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무사들도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차(茶)를 마시는 일은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恒茶飯事’라고 한다. 이 평범한 일상성이 생활의 아름다움이었다. 일본 특유의 다도문화의 예술화를 고도화시킨 장본인들은 중세의 무사들이다. 싸움터

의 죽음 길을 가면서도 벚꽃을 투구에 장식하는 여유로움은 다도정신(茶道精神)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헤이안(平安) 시대(794~1192) 초기에 들어온 중국의 차 마시는 풍속은 일본에 정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멸 되었다가 약 400년 후 가마쿠라(鎌倉) 시대(1292~1333) 초기에 이르러 송나라 와의 교류가 성행하던 시기에 일본에 다시 수입된다. 차를 끓여서 대접하는 예절이나 다도라 불리는 예도(禮道)가 태동하게 된 것은 무로마치 시대로부터 모모야마(桃山: 16세기 후반) 시대에 걸친 일이다.

중국을 통하여 들여온 차 문화이지만 무사들은 그들의 눈에 비친 고려의 다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섬세한 아름다움보다 거칠고 투박한 모습에 매료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禪)과 통하는 고담무심(枯淡無心)의 경지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삿갓을 쓰고 팔도를 유람한 조선의 김병연처럼 방랑의 시인인 바쇼(芭蕉)도 ‘와비(わび): 간소하고 차분한 아취’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 하이도(俳道: 하이쿠가 추구하는 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 없는 마음으로 전해진다. ‘차분하고 온근함’은 사물로 전해진다. 사물이 마음에 비치는 것이다. 일본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원래부터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에서가 아닌, 생활을 위하여 만든 평범한 다구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듯이 요원한 아름다움에서가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아름다움이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아닌, 관념에서가 아닌, 생활 속에서 한층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주시했다. 즉심즉불(即心即佛), 물심일여(物心一如), 모두 진리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모두 같은 진리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눈앞에 보이는 부처와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그 염격함과 온화함, 맑음, 부드러움에서 어떠한 경계도 없다. 무사와 선승과 다인이 추구하는 바는 일백상통(一脈相傳)한다. 그 차이는 외형에 지나지 않는다. 검을 다루는 무사도, 마음을 다루는 선승도, 다구를 다루

는 다인도, 마음에 더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도 도 다도도 수행의 한 길(道)일 뿐이다.

거만한 자, 우쭐대는 자, 부자, 더러운 자, 교만한 자. 이러한 범부 중생이 어떻게 아름다움의 법문(法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무사도와 선종의 가르침 다도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심도(心道)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본인의 미의식 저변에는 깊이 있는 선종의 영향이 지대하며 그 미적 가치를 논함에 벚꽃처럼 지는 무사도의 죽음관과 상징성은 고준(高峻)하기만 한 일본인 특유의 미의식이 저변에 깊이 내재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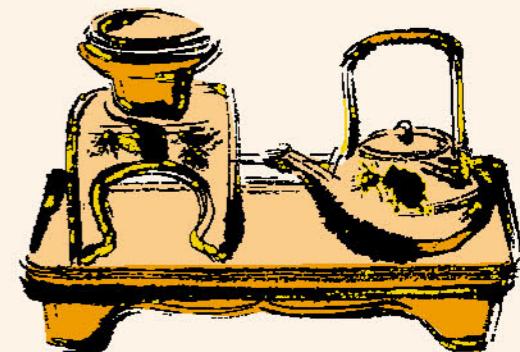
일본인의 미의식에서 그들의 미적 가치와 상징성은 일본인 연구의 중요한 키워드이며 궁극적(窮極的)인 가치체계(價值體系)라고 할 수 있다. 교토의 무라사키노(紫野) 다이토쿠지(大德寺) 고호안(孤蓮庵)에 천하제일의 찻잔이 있다. ‘기자에몬이도(喜左衛門井戸)’라는 조선에서 전래한 찻잔이다. 임진왜란이 실은 찻잔 소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난리라면 어이없고 기가 막힌 전쟁이 아닐 수 없다. 불품없는 찻사발이 무사들의 심증을 어지럽힌 이유는 일본인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일본에서는 대명물 중 대명물이 ‘기자에몬이도’이다. 이를테면 다구의 왕이다. 이러한 찻잔의 극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화경청적(和敬清寂)’이다.

‘이도’는 조선 지명의 음을 그대로 글자화한 것이고 ‘기자에몬(喜左衛門)’은 인명이다. 성(姓)은 다케타(竹田), 오사카의 조년(町人: 일본 근세 사회 계층의 하나로, 도시에 사는 상인, 장인계급의 사람들을 말함)이라는 이가 지난 물건이기에 ‘기자에몬이도’라고 한다. 이 찻잔에는 불행한 사연이 있다. “이것을 지난 자는 재앙으로 종기에 걸린다.”라는 것이다.

일찍이 이 찻잔을 소유한 이는 다도에 심취한 이들이었다. 영락하여 교토 시마바라(島原)에 드나드는 마부로 전락했지만, 이 찻잔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종기를 앓다 죽어 버렸다. 재앙을 입은 것이다. 후마이코도 이 찻잔을 손에 넣

은 이래 두 번의 종기로 괴로워했다. 재앙을 두려워 한 그의 부인도 후마이코의 애착을 끊힐 수 없었다. 후마이코가 죽고 아들 겟탄이 종기를 앓게 되자 다이토쿠지(大德寺) 고호안(孤蓮庵)에 기증하게 된다. 이것이 1818년 6월13일이다. 메이지 유신 전까지 마쓰다이라(松平) 가문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이 찻잔을 볼 수 없었다. 실로 비장(秘藏)해야 할 것이다. 후마이코가 죽은 지 100년, 사람은 죽었지만 찻잔은 지금도 옛날 그대로이다. 이 찻잔에는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과 아름다움에 대한 삶이깃들어 있다. 야나기무네요시(1889~1961) 가지적했듯이 이것은 조선의 밥그릇이다. 서민들이 흔히 쓰는 평범한 그릇이며 흔해 빼진 물건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천하의 명기이며 국보이고 대명물이다. 「임제록(臨濟錄)」에 “無事는 바로 貴人,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선어(禪語)에도 ‘지도 무난(至道無難)’이라고 했다. 정리해보면 고즈넉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최후의 아름다움이다. ‘기자에몬이도’가 아름다울까?

인위적이거나 꾸밈이 없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일본인들이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불품없는 찻잔도 이미 보는 자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준 것이다. ●



## 나무 한 가지에 살아도 편안하다

- 해남 대홍사 일지암을 다녀와서 -

만성 / 사교과

잊고 있던 하늘이고 들녘이다. 지천으로 무성한 갈대가 계절도 모르고 저마다 연자줏빛 꽃을 달고 갈바람에 너울거리는 게 장관이다. 어디에 있어도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 바람이 다정(茶亭) 마루에서 살랑거릴 때 그저 적묘 속의 사유만이 유영하는 듯한 조용한 그곳에 들어섰다.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일지암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선승 초의 선사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시(詩), 서(書), 화(畫) 삼절로 차(茶)를 중흥시킨 초

의 선사(1789~1866)는 이곳에서 만년 40년 동안 독처지관(獨處止觀) 하셨다. 또한, 차와 선, 시와 그림, 예술과 문화가 하나 되는 삶을 일구시며 차(茶)의 교과서인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禪傳)」 등 그 밖의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일지(一枝)'라는 이름은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에 있는 '뱀새가 깊은 숲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한 나뭇가지면 충분하다. [雞鳩巢於深林不過一枝] 와 한산(寒山)의 시 「금서자수(琴書自隨)」

의 '뱀새는 언제나 한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무 한 가지에 살아도 편안하다. [想念訥鵠鳥安身在一枝] 에서 따온 것이다. '초의(草衣)'는 풀로 옷 대신 몸을 가리고 있다는 뜻이다. '일지'나 '초의'는 다 육심 없는 무소유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심의 뿌리를 거두게 하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그 옛날 초의 선사는 왜 속세를 등지고 이 높은 산 중턱에 올라와 혼자 사시며 차를 벗했을까. 초사 김정희나 다산 정약용이 선사와 교유하며 나누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차가 가지고 있는 화경청적(和敬清寂)의 덕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고요한 가운데 생각을 가다듬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되, 세상을 조회롭게 회복하게 만드는 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초의 선사가 차를 마시며 추구했던 정신세계요, 벗들과 나눈 담소이리라.

일지암 뒤편의 비탈진 산 우거진 숲을 헤치고 흘러나오는 물이 대나무 대룡을 타고 내려와 아담한 돌확에 떨어진다. 유천(乳泉)이다. 뒷산 바위틈에서 솟아오르는 용달샘을 백운천(白雲泉)이라 이름 하고 차 끓이는 물로 사용하다가 후일에 유천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초정(草亭)은 가운데에 방 한 칸을 두고 시면에 뒷마루를 두른 4평 규모의 띠집이다. 초의다합(草衣茶盒)은 일지암 위쪽 연못에 평석을 쌓아올린 4개의 돌기둥이 누마루를 받친 목조 건축물로 독특한 운치를 자아낸다. 가늘게 움직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빽빽하게 우거진 동백림이 정겹게 보인다. 고운 단풍잎은 화사하게 뜰을 장식해주고, 정교하게 조성된 정원 옆에는 가을 하늘을 그대로 비추는 연못이 맑은 물을 가득 담고 있다. 이 연못에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눈부시게 흰 수련이 청순한 자태와 맑은 방향(芳香)을 발산하고 있다. 연못에 잉어가 한가로이 노닐고 누마루에서 구름 낀 산경을 멀리 내려다보는 다희(多繪)와 선유(仙遊)는 자연과 우주의 섭리를 음미하게 할만하다.



가을별 따스한 날 씹쌀한 바람에 실려 온 대자연의 소리 없는 교향악에 내 몸을 말긴다. 한 사람이 쌓아올린 아름다운 정신의 향기가 이렇게 천리만리 시공을 초월함을 느낄 때, 출가 전부터 차 뒤는 데 관심이 깊었던 주지 무인 스님께서 차를 달여 주신다. 가볍게 이는 설렘으로 다완(茶碗)을 든다. 연둣빛 물감을 살짝 푼 것 같은 투명한 일지암의 햇녹차를 한 모금 머금는다.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뒤따라 올 여향(餘香)을 기다리며 그 옛날 선사의 삶을 떠올려 본다.

꽃 노을과 옛 인연 끊을 수 없어  
죽이 살만한 집 한 칸 지어놓고  
못을 파니 달빛은 밝게 잠기고  
간짓대로 멀리 백운천을 끌었도다.  
새로이 향 더하고 신령한 약 얹었으니  
폐로 원기 모아 묘련을 펼치며  
눈앞 가린 꽃가지 잘라버리니  
석양하늘 고운 산 어울렸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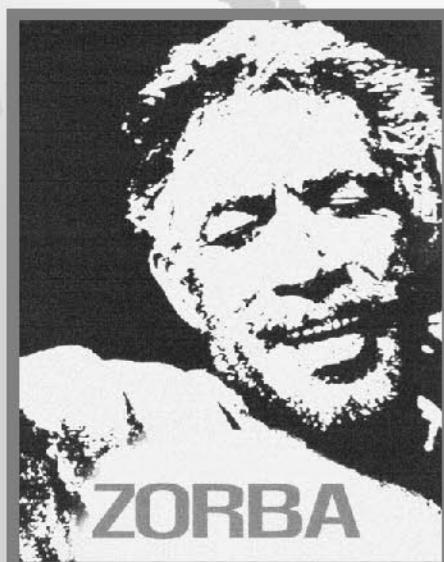
초의 선사의 땀과 정성이 느껴지는 일지암은 차문화의 상징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일지암의 문살을 문지르는 석양빛에서도 선사의 가르침이 비치는 듯하다. 가만히 불상 앞에 두 손을 모은다. ●



##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희랍인 조르바』를 읽고 -

문강 / 사교과



눈이 부시도록 푸른 날은 이제 지나가고 초록은 지쳐 단풍이 듈다. 겹히 자연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동바등 살고 있는 나를 본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럴 때가 있다. 무언가 손에 잡은 것 같아서 자신 있게 펼쳤는데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날날의 모래알들을 볼 때, 가끔 이럴 때가 있다. 머리는 이해가 끝났는데 도저히 행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자신을 볼 때, 가끔 이럴 때가 있다. 지나간 일들을 아직도 곱씹으며 다가올 날들을 맞이한다는 두려움으로 정작 지금을 알아채지 못할 때 등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소화시키지 못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며 생활에 젖어 있는 나를 볼 때이다. 이럴 때 나는 두 권의 책을 찾게 된다. 먼저 『대 반열반경』에서는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불타의 모습에서 '모든 존재 하나하나는 결국 쇠락하고 말 것이니 해탈을 향해 부지런히 힘쓰라.'라는 정신이 번쩍 드는 일갈을 듣게 되고, 『희랍인 조르바』에서는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관습과 인식의 생활에 식어버린 나의 열망을 다시 이끌어주는 멋진 친구를 만나게 된다.

『희랍인 조르바』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작품으로 자신의 교향인 그리스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함께 생활했던 실존 인물 조르바를 주인공으로 소설화하였다. '마음이여, 나는 그에게 괴를 주어 삶을 되찾게 할 것이며 먹고 마시고 말처럼 일하고 여자를 쫓아다니는 그 놀라운 뜨내기가 그리고 내 평생 알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영혼이 트이고 가장 자유롭게 외치던 자가 조금 더 오래 살게 하자.'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자신이 죽기 1년 전 탈고한 「영혼의 자서전」에서 조르바의 죽음 이후 그를 영원히 되살리는 작업인 글쓰기 - 『희랍인 조르바』를 시작하는 과정을 밝히는 대목이다.

화자인 '나'는 조르바의 표현처럼 책으로 책을 정복하는 30대의 나약한 문맹인이다. 알렉시스 조

르바는 여러 직업과 전장에서 많은 경험을 겪은 키가 크고 몸이 단단한 60대의 여원 사람이다. (신체상으로는, 그러나 조르바의 정신에는 나이 들이란 없다.)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머문 항구의 카페에서 '나'는 조르바를 처음 만나게 되고, 들은 갈탄광 개발을 위해 크레타 섬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과 사건들에 엮이면서 소설은 전개된다. '나'는 가슴은 살아 있고 입은 크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며 어머니인 대지에서 텃줄이 떨어지지 않은 생의 가장 우발적 미주침인 조르바와 함께 하며 '나'의 넓은 관념의 서판 위에 새로운 정의들을 써나가기 시작한다.

'새끼손가락 하나가 왜 없느냐고요? 질그릇을 만들자면 물레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왼손 새끼손가락이 자꾸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끼로 내리쳐 잘라버렸어요.'

'인간의 머리란 식료품 상점과 같은 거예요. 계속 계산합니다.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익은 얼마나 손해는 얼마나. 머리란 좀 상스러운 가게 주인이지요. 가진 걸 다 걸어볼 생각은 않고 꼭 예비금을 벌어두니까. 이러니 줄을 자를 수 없지, 잘 라야 인생을 제대로 보게 되는데.'

조르바의 사고는 거칠다. 조르바는 사람들이 말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규정짓는 것에 항상 부딪히는 사람이다. 통속적인 생각으로는 '그르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고 행동이다. 사랑도 일도 노래도 춤도 그에게 있어서 중간쯤의 경지는 없다.

"조르바에게는 항상 표현 못 하는 감정의 용어들이 고여 있다. 세상은 그에게 숨겨진 보물들로 가득 찬 것이고 조르바는 그 보물을 찾는 선장인 셈이다. 그는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산투리(악기의 일종)를 틀고 춤을 춘다. 온몸으로 기뻐하고 온몸으로 슬퍼해야만 복받쳐 오르는 생이 유지될 수 있다. 조르바는 어찌 보면 무식한 재판관

이다. 그에겐 후회도 영원한 미래도 없다. 그는 오롯이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조르바는 관습과 권력에 길들여진 모든 대상에 채찍질을 가한다. 돌멩이들은 비탈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조르바의 대꾸에 '나'는 덧붙인다. "그는 매사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를 본다. 아니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만사가 조르바에겐 기적으로 온다. 만사가 조르바에게 '마음먹기 품이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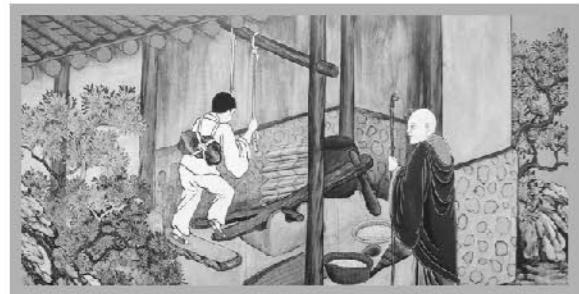
뜨겁고 치열하게 생에 밀착해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자유, 생의 가장 밑자리까지 질주함으로써 생을 정복하는 자. 춤추고, 싸우고, 일하고, 곡괭이와 산투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손을 가진 조르바. 카잔차키스는 이런 조르바를 자신의 영혼에 깊은 자취를 남긴 인물로, 방황기에 '영혼의 나침반으로 작용하였던 한 없이 새까만 구원의 눈'이라고 명명한 불타와 함께 들고 있다. 나에게는 길을 짚어 해맬 때마다 인내와 용기를 시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라며 반문하는 『희랍인 조르바』가 구원의 눈이었다.

조르바는 매 순간 자문한다. '조르바,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일하고 있네.' '열심히 하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뿐이다. 지금 조르바가 나에게 묻는다. '문강,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살고 있다.' '그럼 잘 살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 『육조단경』을 스승 삼고

- 6조 혜능대사 -

민석 / 사집과



목이 터져라 울던 매미 소리도, 매섭게 내리쬐던 강렬한 햇살도 이제는 풀이 꺾여 사그라졌다. 말 그대로 광활한 가을 하늘이다. 이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지난날 모두 그렇게 땀을 흘리며 애를 썼나 보다.

점차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가 큰 결실로 마무리 짓는 세월의 흐름이 마치 한 방편으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심오하고 미묘한 법을 설해주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아 보인다. 수행하는 이의 현재 위치에서 나아가는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의 가르침 말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분이 계셨으니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종의 창시자 6조 혜능대사이다. 대사의 가르침은 자기의 성품을 바로 보고 단박에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다. 돈오의 씨앗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바로 정확하게 심어주는 힘찬 가르침이었다. 문자를 배운 바가 없음에도 이처럼 마음의 근원을 바로 보고 잘 설하신 그분이 너무도 존경스럽다.

동아시아 대승 불교의 주류 세력을 키워 1,300년 역사를 있게 한 혜능대사는 20세까지 시골에서 나무를 하여 시장에 팔아 흘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견실한 청년이었다. 하루는 나뭇짐을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금강경」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내용에 감명을 받고 느낀 바가 있어 출가를 결심하고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간다. 황매에 도착한 혜능은 5조와 처음 문답을 나눈다. 그것이 바로 「불성무남북(佛性無南北)」이라는 선문답이다. 5조는 영남에서 온 혜능에게 「영남의 야만인은 감히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혜능이 답한다. “사람에게는 남북의 구별이 있지만, 불성에 어찌 남북의 분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분은 비록 같

지 않지만,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라며 모든 사람의 불성이 평등함을 주장했다.

그런데 일자무식인 혜능대사가 어떻게 철학, 종교, 문화,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선불교, 선종의 창시자가 되었을까? 참선이나 두타행을 하지도 않았고 불교경전을 열심히 암송하지도 않았다. 단지 8개월간의 행자 생활. 그것도 큰절의 대중공양을 위해 방아찧는 일을 한 것이 수행 전부였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혜능대사가 설하신 정통 돈교 최상 대승 마하반야바라밀법은 불교의 다른 어떤 종의 사상보다 폭이 넓고 깊다. 오늘날의 간화선법은 혜능대사의 가르침을 일부분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 대사의 가르침은 지금의 불교를 넘어 많은 문화에까지 방대하고 뿌리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인생철학과 사유체계, 넓게는 음식, 패션 등의 문화에까지 다양한 영향을 끼쳐 오늘날에는 선 패션, 선식 등의 유행이 생겨나기도 했다.

기독교에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있다면, 불교의 혁명가는 혜능대사가 아닌가 싶다. 불교를 돈으로 승격시키고 자신이 깨달은 즉심즉불의 돈오성불 사상을 세상에 널리 펼쳤다. 대사는 오로지 인간의 현존 가치를 중시해 성불을 내세나 피안으로 미루지 않고 ‘당대 성불’ 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멀도 하기 직전에는 후대인들의 깨달음을 위해 계승으로 가르침을 전했다.

다면, 부처가 중생인 줄 알기만 하면 바로 자신의 부처 보아 아네.  
인연에 따라서 중생이긴 하나 중생 떠나서 부처 없다네.  
마음이 차별로서 험하기만 하니 부처, 중생이나 마음이 평등하면 중생이 곧 부처라네.  
자신에게 부처마음 없다면 그 어디에서 부처를 구할 수 있나?  
후학들이여! 바로 보시게, 자신의 마음 그 성품이 진 불이시니.

『육조단경』은 혜능대사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마하반야바라밀법이 후대까지 전해지도록 대법사 설법의 속기록으로 집기된 것이다. 지금의 「단경」 해석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는 것으로 다투다 해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다투지 않는다 해도 수행에 지장은 없다. 진리는 범부들이 시시비비 한다고 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자나 문구의 뜻만을 고집하지 않고 진리의 본래 뜻을 바로 보질 원한다면 자신의 분별 잣대를 배제하고 마음을 열어 경전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조사 스님들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옛 선지식들은 공부할 때 “『육조단경』을 스승 삼고 대체 「서장」을 벗 삼아라.”라고 하셨다. 아직 잘 길이 먼 우리에게 수행의 지침서가 되는 이러한 선지식의 가르침은 어두운 바닷길에 등대와도 같다. 그 환한 불빛 따라 나도 있는 힘껏 수행의 노를 저어보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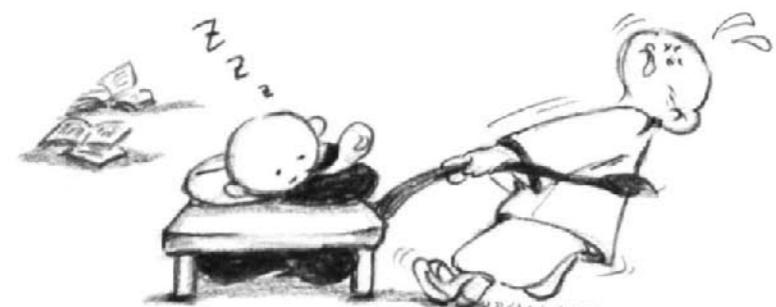
尋牛圖  
新문심우도

서주/사교과

•見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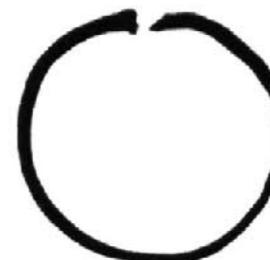
•得牛



•騎牛歸家



•人牛俱忘



•入廛垂手



## 행복의 길

- 참 스승 진옥 스님을 뵙고 -

태범 / 대교과



낯선 길을 가는 나그네에겐 이정표나 안내자가 필요하다. 마음의 길을 찾아 나선 구도자에겐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자신의 문제다. 스승은 자신의 구도심과 수행 정도에 따라 인연 지어지기 마련이니까. 우리의 일상사 어디에서든 스승은 있다.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

전남 여수 마리산 아래 충무공의 충절이 깃든 충민사 옆에 석천사가 있다. 그곳에 가면 더불어 사는 것이 대승의 길임을 실천 수행하시는 진옥 스님'을 볼 수 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 대표이시며, 복지법인 보문 복지회를 두고 그 산하에 노인요양 시설 '하얀 연꽃'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계신다. 직장인을 위한 월요 저녁법회, 화요일 교리공부, 어린이법회, 기족법회, 노인을 위한 정토법회 등을 열어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실천 수행하신다. 또한, 성하 달라이라마 친견법회를 10여 년째 주관하고 있다 하니 스님은 진정 행복한 스승임이 분명하다.

스님께선 전법 활동으로 복지, 환경, 포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동시에 하시는지요?

그것은 분야를 나눈 사람들의 잘못이지. 우선 환경운동이란 생명 전체를 위한 복지이지. 우주 법계가 연기법을 벗어나지 않듯이 환경이라는 곳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 그래서 환경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생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삶의 방식을 윤택하게 하지. 그것이 복지이고 포교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하는데도 육바라밀의 보시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의 첫

단계를 열 수 있으며,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지 않고서 어찌 수행이 완성되겠어. 그러니까 다 해야 하는 거야.

이분법적인 사고에 젖어서 대상과 차별화시키는 오만함을 버리지 않는 한, 하화중생(下化衆生)은 관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스님을 통해 일상에서 보리심을 행하여 지금 이 자리를 정토로 만들고 있는 참다운 수행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여러 개의 복지 시설 리더로 중심에 서 계시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음, 현재 복지 시설은 12개이고 프로그램은 70여 개이지. 중심에 선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작업이지. 그것이 수행이야.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는 뒤로 물려서는 것이지. 개개가 다 부처라고 인정하듯이 능력이 있고 특성이 있는 분들이니 내가 모시고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그분들이 다 나의 분신이 되어서 일을 해주시지. 법회경에서 부처님이 '보살(菩薩)은 여래사(如來使)'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다. 행함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중생을 위한 간절함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스님의 생활 그 자체가 비우고 또 비우는 보살행이었다. 소탈한 웃음과 간결한 말씀에서 수행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기독교가 우세하다고 알려진 여수에서 어떤 마음으로 큰 불사를 일으키고, 포교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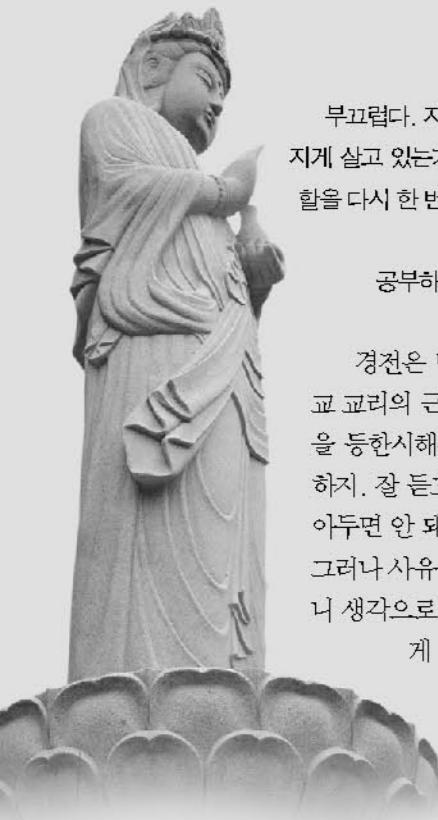
겉으로 보면 안 돼. 기독교가 우세한 것이 아니라 불교가 안 해. 바른 법을 퍼지 않고 법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불교가 힘이 없고, 불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불교가 법으로써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지 않고 이기적, 개인적, 기복적 불교를 하기 때문이지. 통계상으로 보면 여수도 불



교인이 22%이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치면 23% 이거든. 기독교가 많다고 말하지 말고, 불교를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하지.

불법대로 살 수 있도록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하지. 우선 수행하도록 해야 하지. 불자란 모두가 수행자이지. 출가수행자 재가수행자. 수행의 핵심은 대승수행이야. 스님이건 신도건 대승 수행의 핵심인 육바라밀을 실천해 나가면서 수행으로 이어져서 내가 차츰차츰 바뀌어 가는 것이지. 결국은 스님들이 스승으로서 그 중심에 서야 해.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자비심을 일으켜 갈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어야 해. 그 역할을 못하면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헛짓이지. 생활불교란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지. 욕심을 없애기 위해 최상의 처방책인 보시를 하고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지. 탐욕심을 버리지 않고 참선만 한다면 그 사람은 명예욕만 높아지지. 그러면 엉뚱한 짓만 해서 점차 수행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야.



부끄럽다. 지금 나는 수행자임을 자각하며 매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알아차림을 수행으로 이어지게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이나 자비심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일체 대도사(一切大導師)라는 스승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말씀이다.

공부하는 이는 경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경전은 박람(博覽)해야 하지. 하나의 경전에 치우쳐 보면 정견을 세우지 못하지. 대승불교 교리의 근간도 소승의 사성제, 연기법, 팔정도를 벗어나 있지 않지. 그러나 소승계의 경전을 등한시해선 안 돼. 이 기초를 벗어나면 외도이지. 다음은 문(聞)·사(思)·수(修)를 해야 하지. 잘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토론해. 그래서 내 속의 고집을 다 깨부숴야 해. 그대로 담아두면 안 돼. 그렇게 한 후에는 조용히 읽고 외우고 사유해서 수행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지. 그러나 사유를 망상과는 잘 구분해야 해. 지금 우리의 생각은 자기 업식(業識)에 지나지 않으니 생각으로 생각을 끊을 수 없지. 망상은 계율을 지키거나 보시를 한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최종적으로 삼매를 닦아야 하지. 즉 주력이나 화두법, 호흡지관법 또는 대승의 관상법을 통해서 그 안의 망상을 제거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선 모든 것이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유는 부처님 말씀인 경을 보고 외우고 새겨 나가는 것이야. 외우지 않고선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 사유는 부처님 말씀의 생각이니 망상이 아니지. 자꾸 사유하다 보면 그것은 내 것 돼. 그런 후에 참선을 하면 쭉- 들어가는 거야.

모든 경전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고요, 자비의 씨앗을 뿌려 욕심과 집착, 헛된 야망을 놓아버리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는 오직 그 가르침에 나를 완전히 열어 놓고 비워서 그것을 온전히 흡수해야 하리라.

경을 보기 전에 참선을 먼저 하는 것은 어떤지요?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가르쳐서 배우는 사람 이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수행도 교학 체계가 바로 서지 않고선 되지 않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스승 없이 수행하는 것은 나로서 끝이다.”라고 하셨지. 쉽게 말하자면 부처님은 지도를 개척하신 분이지. 그러나 공부하는 이가 그 지도를 보지 않고 수행한다면 그건 바보이지. 산을 가는 데 지도 책을 보고 가면 훨씬 빠른 것처럼. 옛날의 납자들도 대부분은 교학의 대가였지.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네. 그러나, 교학 체계가 바로 선 상태에서 참선한다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네.

승가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을 때부터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른 뜻을 설명해 주세요.

수행의 핵심은 앞에서 말했듯이 삼독심을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비구, 비구니야. 학식을 키우는 공부도 방편상은 가능하지. 그러나 학식이 중요하진 않다고 봐. 스님은 학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기 위해 경을 보는 것이니까. 학식으로 보자면 세속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깊지 않겠어?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수행이라는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해. 개인적 견해를 말하자면 경전만 정확히 공부하고 수행으

로 직접 들어가서 맑은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학위란 것이 없어도 된다고 보네. 그러나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어. ‘불립문자’라는 말인데. 우리는 문자나 개념을 가지고 생활하지. 그렇지 않고선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배우지도 못하지. 그러니 불립문자라는 말을 그런데 붙이면 안 돼. 그러나 깨달음의 본질에 들어갈 때는 다르지. 일념의 경계에 들어가면 욕심이 사라져서 맑은 모습이 나타나고 정신도 확 밝아져서 자비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그런 실제적인 핵심에서는 문자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은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봐.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는데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사람들에게 불립문자를 강조해선 안 돼. 최종적일 때는 몰라도.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합니다.

거듭거듭 발심해야지! 일체중생이 나의 어머니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건지겠다는 자비심과 보리심을 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중노릇 혀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봐. 나를 허용해 주고 나를 아껴 주는 것이 왜 그러한지를……. 티베트 기도에 이런 게 있어요. 절하면서 “아미타부처님을 항상 머리에,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양어깨에, 오른손에 친가의 중생을, 왼손에 외가의 중생을, 허리에는 나와 인연 있는 일체중생을 이끌고 내가 세세생생 성불할 때까지 이끌고 가겠습니다.”라고. 어찌 이러한 마음도 없이 중노릇하겠어. 나 혼자 수행

을 하더라도 깊숙이 일체중생을 건지겠다는 보리심을 내고, 사회 복지를 하더라도 저렇게 힘드신 분들이 나의 부모였으니 내 머리카락을 뽑아 깊신을 만들어 신겨 드리고, 부모님을 양어깨에 태워 모시고 서 수미산을 돌고 돌아 구경시켜 드린다 해도 은혜갚기 어려움을 알아야 해. 이산혜원선사의 발원문 중에 “모진 질병 둘 적에는 약풀 되어 치료하고 흠헌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익한 일 한가진들 빼오리까?”라는 말씀처럼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야 해. 그렇지 않고서 뭇 공부가 되겠나. 깨달음 병에 걸리지 말고.

스님께선 늘 『입보리행론』의 다음과 같은 말을 시유 하신다고 한다.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행복의 씨앗은 심지 않고 악행만 행하는구나. 누구든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불행의 씨앗은 거듭거듭 심는구나.’

벌써 화엄 가을철 끝 무렵이다. 흔히 세월을 유수와 같다고 한다. 4년간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가슴에 새겨 보기도 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사무치지 못했으며,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실천이 결여된 수행이란 있을 수 없는데 말이다. 그만큼 행복의 길에서 멀어진 것일까. 행복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의 이치를 알아 주객이 하나임을 깨우쳐 보리로 향한 항해를 하는 것이라. 순항을 하느냐, 난항을 하느냐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 항로에서 우리가 만난 참스승 진옥 스님의 삶은 분명히 행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 ●



## 보살의 행

편집부

범부의 행도 아니고 성현의 행도 아닌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윤회를 거듭하면서도 정작 번뇌를 온전히 여원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열반에 이르렀지만, 결코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네 가지 마(四魔)를 가까이하면서도 정작 모든 마의 영역을 초월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일체자를 구하면서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억지로 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면서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억지로 깨달으려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안으로 향한 바른 사유에 전념하는 가운데 결심한 대로 굳이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무엇하나 생겨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굳이 결정적인 깨달음을 선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연기법에 능통하면서 결코 일체의 그릇된 견해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사람들로 와자지껄한 장소를 즐겨 찾지만 정작 번뇌와 혼돈을 훌쩍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세상을 훌쩍 벗어나기를 좋아하지만, 결코 몸과 마음을 감추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삼계에 머무르면서도 결코 법계에 치우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공하다는 이치를 잘 알면서도 덕 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무상의 이치를 잘 알면서도 모든 사람을 해탈시키고자 궁리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무원의 이치를 잘 알면서도 결심한 대로 굳이 윤회의 세계에 몸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애써 짓고자 하지 않으면서도 온갖 선근을 끊임없이 짓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여섯 가지 평안에 이르렀으면서도 정작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의 평안에 도달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여섯 가지 신통력을 지니고도 굳이 번뇌를 떨어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바른 법을 알면서도 삿된 도를 뒤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지니고도 굳이 범천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기대를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여섯 가지 사념(思念)에 전념하면서도 결코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선정과 삼매와 명상을 실천하면서도 결코 삼매와 명상의 힘을 빌려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몸과 감각기관과 마음과 법에 관하여 바르게 생각(四念處)하면서 굳이 몸과 감각기관과 마음과 법을 꺼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바른 노력(四正勤)에 전념하면서도 결코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네 가지 기본적인 신통력에 능통하면서도 크게 애쓰지 않고 신통에 자유 자재한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다섯 가지 기능(五根)을 지니면서 모든 사람의 근기를 훤히 꿰뚫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다섯 가지 능력(五力)을 지니고도 나아가 여래의 열 가지 능력(十力)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수행에 필요한 일곱 가지 항목을 모두 이루었으면서도 정작 암 가운데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팔정도를 잘 알면서 결코 삿된 견해를 뒤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마음의 고요함(止)과 밝게 꿰뚫어 봄(觀)이라는 깨달음의 바탕을 모두 마련하고도 결코 국단적인 적멸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모든 존재는 생겨남이 없음을 상(相)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뛰어난 상호로써 자신의 몸을 장식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성문 및 독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코 부처님과 같은 위엄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본래부터 청정하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모든 중생이 원하는 대로 따라 주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어떠한 불국토에도 종말의 시기와 생성의 시기는 없으며 그 이유가 허공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온갖 장식으로 꾸며진 불국토의 눈부신 광경을 자세히 보여 주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행입니다. ◎

『유마경』中에서

# 헛, 그, 참, 내, 원……

안상학 / 시인

난생처음 詩書展을 하는 초짜배기가 전시를 앞 두고 만감이 교차한다. 이 좋은 기울에 나들이 한번 못하고 먹과 씨름하고 있는 내 모습이 가엾다. 자업자득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집 나간들 어디 가랴. 꿀방에 쳐박혀 몇 번 끼적거린 볶질 깅냥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기저기 훌린 탓에 이 지경까지 왔다. 그 놈의 술이 원수다. 다 내 탓이다.

술에 취하면 보이는 게 없나 보다. 당대에 일가를 이룬 嵐泉선생 서실에서, 漢鈞형 서재에서 종이를 어지럽혔으니 가소롭기 짜이 없는 영판 흘아비다. 성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취기만 오르면 지나가는 뚱개 꼬리만 보아도 볶질하고 싶어 눈이 뒤집히고, 문어탕 속 먹물만 보아도 나무젓가락으로 찍어대는 이 피상망측한 벼룩은 당최 그 유래를 짐작기가 가자미 빌바닥이다. 서당이라고는 오성과 한음만 다니는 뎐 줄이나 알았고, 볶이라고는 김 구울 때 참기름 칠이나 하는 용도로 알았지 글씨는 무슨 글씨. 서실이라고는 남천 선

생 木硯에 터억하니 한 달 끊어놓고 딱 사흘 한一字 그어본 게 전부이고 보면 글씨 내력이야 하루살이 삼년상이 진배없다. 전생에 볶질 못해 죽은 귀신이 덮여 쓰였는지 사주를 뒤져봐도 나오는 패 또한 가관이어서 물총 찬 카우보이요, 몽당비 비껴 맨 사무라이 꿀이니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 주제에 글씨는 무슨 글씨. 혗, 그, 참.

술을 탓했으니 이젠 벗들을 탓할 순서다. 지난 봄이었을 것이다. 한국화를 하는 易齋의 작업실인 檐雲齋에서 달빛 사냥주를 마시는 날이었을 것이다. 달빛만 보면 회가 동하는 늑대과 주당들이 모였으니 오죽했겠는가. 취기가 올라 정수리에서 술 샘이 솟을 즈음 되니 사시미 간장도 먹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나무젓가락 끝에서는 아닌 돼지털이 돌은듯하니 예의 못된 벼룩이 어이 가차가 있을 건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눈빛으로 사방을 둘러보니 오후라! 평소 주인의 먹물 총애를 못 받아서 잘려나간 자투리 종이들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

닌가. 연민이라면 둘째 가기 아까운 소치에다 외면은 고려장에 보내고도 천년이 지났으니 어쩌랴. 평소 먹고 사는 주인장이니 만큼 먹물 또한 넉넉하겠다. 지천으로 널린 게 볶자루니 아무 거나 집어 들고, 찍고, 갈기면 그만이었다. 꿀에 쓰는 것이라고는 '꽃, 다함께 피어야 봄' 이었느니 봄이 오다가도 비껴갈 노릇이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그날 이후로 到海와 水影이 시서전을 하라고 못살게 굴었다. 술 취하면 그려하고, 술 깨면 내가 무슨, 반복하다가 이 좋은 가을 때 아닌 품삯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꼬리 내리자면, 다, 내, 탓이다.

천성이 미혹한 탓에 맨 정신으로는 절대 남에게 보일 만한 작품이 아님을 가로 늦게야 깨닫고 땅을 칠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너무 남발한 약속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 쓴 글씨를 두고 平砂落雁이라고 했던가. 머릿속에 맴돌던 어여쁜 기러기들은 어딜 가고 온갖 뼈 없고 발도 없는, 길고 짧은 별례들이 종이 기득 구물거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몸서리친다. 어깨는 굳어가고 허리는 끊어질 것만 같고 다리는 뻣정다리가 되어가고 눈앞은 그저 침침할 따름이다. 날은 다가오고 조바심은 나는데 마음에는 차지 않으니 진땀이 한강이요 애간장은 불타는 사막이다. 이 무슨 생고생이람. 수없이 중얼거리기 일쑤다. 혗, 그, 참, 내, 원.

붓글씨를 쓸 때 한 획의 실수는 그 다음 획으로 감싸고, 한 자의 실수는 그 다음 자 또

는 다음 다음 자로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행의 결함은 다음 행의 배려로 고칩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한 폭의 서예 작품은 실수와 보상과 결합과 사파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며 감싸주는 대사로운 인정이 푸르녹아 있습니다.(신영복)

생고생활 때 구세주처럼 다가온 말이다. 평소 한글의 조합이 아름다운 것은 알고 있었는데 붓글씨에 이렇게까지 곡진하게 '미학에세이'를 덧붙인 쇠귀 선생의 혜안이 가슴을 울린다. 이 글귀는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인내자가 되었다. 성미가 급하여 한두 자 버성기면 구겨버리는, 끝까지 써보는 인내는 해당초 짬 짬 먹은 회상이 보기엔 더없이 좋은 선생이다. 인내를 배우고, 조화로운 삶을 배운다. 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들이다. 글씨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글씨를 쓰면서 인내심을 기르고 조화로운 삶에 대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 작업은 정성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다. 좋은 글씨를 도모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한 걸음 한 발짝 나아가는 行이 더 소중하다는 것 또한 나에게는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이쯤 되면 벗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 다 인간이 되라는 뜻으로 되새긴다.

곧 겨울이다. 전시를 무사히 치를 수만 있다면 이 가을 생고생을 세상이 낸 천하제일의 일필휘지 운문사 와송님에게나 보내서 달래나 봐야겠다. 창밖 가을 산이 깊다. ☺

안상학(安相學)님은 1962년 경북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용수사 절터에서 태어났다.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1987年 11月의 新川」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는 「그대 무사한가», 「안동소주», 「오래된 엽서», 「아배생각」이 있다. 그밖에 산문공저 「길고 푸른 바다를 보았지», 평전 「권종대·통일걷이를 꿈꾼 농투성의」가 있다. 현재 한국작가회의 이사,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부처님 나라에서

원점 / 대교과

부처님 나라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신심 나는 여행하고 오라는 인사와 함께 첫발을 내디딘 곳은 네팔의 카트만두!! 올여름처럼 더운 여름이 없었고 이제야 선선한 바람이 불어 아~ 좋다! 했는데, 이곳은 그보다 더 찐한 불볕더위가 온몸으로 우리를 맞 이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었던 인도의 날씨는 정말 그냥 들었던 것뿐이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문제없던걸요. 이 정도 더위쯤이야!

첫날, 도착한 네팔의 보드나트 사원에는 부처님의 뼈사리가 모셔져 있는 38m의 대탑이 있었습니다. 탑 꼭대기에는 눈과 코만 있는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깨달음은 들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말조차 필요 없기 때문에 귀와 입은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견을 시작으로 팔정도를 닦아 해탈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뜻을 이해할 것도 같았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이라는 뜻을 가진 카트만두 시내 최고의 불교 성지 스와암부나트 사원의 대탑도 그렇게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 속 내면을 향한 눈빛과 고요한 숨소리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히말라야 설산 일출을 보기 위해 나갈코트로 향합니다. 버스는 달리고 달려 해발 2,200m의 정상에 우리를 내려주었지요. 한참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저 멀리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안나푸르나가 점점 밝아지며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저 히말라야에 오르는지 진정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장 도전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로 향합니다. 룸비니 동산을 향하는 붉은 벽돌 사이사이에 있는 오래된 푸른 이끼는 이제 화석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



▲ 룸비니동산

을 지금 내가 걷고 있고, 2,500년의 시간이 이 길 위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룸비니에서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깊이 읊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처님 당신만이 홀로 존귀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일체만물, 개개인이 다 높다는 것을 밝혀 주신 뜻이라 새겨봅니다. 56명이 한목소리로 삼귀의를 올리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한껏 느끼고 너울너울 넘어가는 해를 보며 한국사찰인 대성 석가사로 돌아왔습니다. 대성 석가사는 경주 황룡사 규모 그대로 지어졌는데 여기 네팔에서 다시 그 옛날 신라의 향기를 느껴 볼 수 있었습니다. 짧았던 달콤한 휴식을 남겨 놓고 다음날 아침 소나울리 국경을 지나 인도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34배인 인도는 한번 버스를 타면 평균 8시간. 오늘도 9시간 버스를 타고 쿠시나가르로 이동합니다. 쿠시나가르, 그 이름만 들어도 찡하지 않습니까? 입구에서부터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리려고 미리 준비해 간 금란가사를 다 함께 펼쳐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정말 장엄합니다. 드디어 대열반당입니다.

두둥!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환한 빛으로 “너희 왔느냐?” 반기시며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예불을 모시며 올려다본 부처님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생을 놓고 열반에 든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自燈明 法燈明’의 울림이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가만히 부처님

발밑에 엎드려 발원해 봅니다.

항상 내면의 진실한 곳에서 고요히 숨 쉬는  
님의 깨어있는 눈빛을 마주하게 하소서.  
그 섬세한 눈빛을 잊지 말게 하소서.  
계으로고 안일한 모습에서는  
스스로 각성토록하시고,  
밖으로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강물처럼 초연히 흘러가게 하소서.  
풀픈 마음에는 거울 같은 호수결을 선사하시고,  
낮에 침잠한 심중에는 경쾌한 미소를  
바람에 실어 보내소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에서는 참 배 후에 개인 기도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순수한 정기가 그대로 살아서 에너지를 뿐여주시는 듯 집중하기가 쉬웠습니다. 앉아 있다 보니



▲ 대성 석가사▼

▲ 열반당





▲ 아소카 석주

부처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는 듯 했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위대한 침묵을 통해 자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온 우주의 모든 존재를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며 한 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깨어있기를 발원하며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참회했습니다. 보드가야 대탑을 참배한 인연으로 졸업여행이 더 깊은 정진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바이 살리!!

바이살리에는 세계최대의 불탑인 캐사리아 스투파가 있고, 화엄경 입법계품을 설하신 대림정사도 있습니다. 8만 4천 개 중 지구상에 하나 남은 아소카 석주는 돌에 새겨진 대왕의 남겨진 이야기로 진 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입 멸 후 제1차 결집을 한 칠엽굴에 가면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곳에서 결집한 거냐면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백천만겁 난조우일 수밖에요.

최초 최고의 불교대학인 나란다 대학은 가로세로 각 12k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넓이가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에서 공부를 했다던 대표적인 학인으로는 용수 보살, 아리아데바, 바수반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소카 왕이 이곳을 찾아 사리불의 부도에 경의를 표한 후 사원을 건립하고 이후 대승불교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일부 다른 학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점점 쇠퇴하며 밀교사상으로 변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슬람교도의 침공으로 불타고 말았는데, 책이 다 타는 데만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한때 찬란했던 불교 배움의 역사가, 많은 학자들의 열정과 수고가 그렇게 불타고 말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불법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오랜 설렘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갠지스 강에 갔습니다. 뭐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흥수 때문에 경전에 무수히 나오는 항하사 모래알은 구경할 수도 없었고 타다 남은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는 것이 밖으로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장작을 살 수 없으면 그냥 타는 만큼만 태우고 타다 남은 시체는 그냥 강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에다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목욕하고 입도 행구는 인도인의 모습에서 이들은 이미 생사를 둘로 보지 않으며 세상의 관념을 뛰어넘어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하보디 대탑 보리수나무



▲ 산치대탑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 건물, 무굴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의 아내 룸타즈마할의 무덤인 타지마할은 정말 감탄 감탄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한 아내를 위해 이 건축물을 만들게 됐는데 조각 하나하나 같은 모양이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완성 후에는 같은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500명 장인의 손 목을 잘라 강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자신이 죽으면 무덤으로 쓰려고 흑대리석으로 똑같은 건물을 만들려던 터가 있습니다. 이를 한심하게 여긴 아들이 의해 감옥에 갇혀 완성되지 못했지만, 만약 흑백으로 완성되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건축물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무굴시대의 화려한 성인 아그라 성 감옥에서 창문으로 타지마할을 보며 부인을 그리워하다 눈을 감았다는 샤자한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문화 유산이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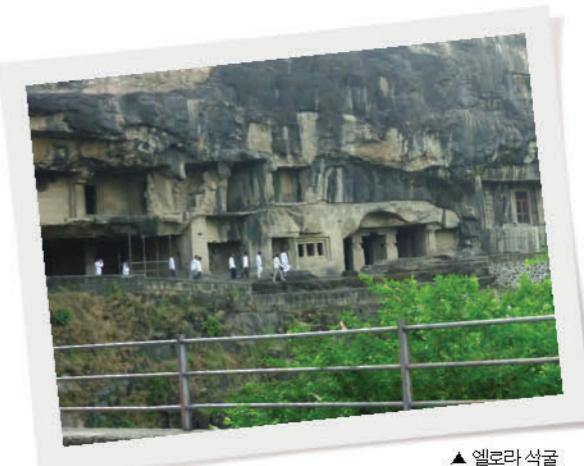
그리고 불탑의 발원지이며 불교미술 문화사의 탑조각 문화의 산실인 산치대탑과 불교 석굴 문화의 본고지인 아잔타 석굴을 참배했습니다. 아잔타 석굴 법당에서 올리는 '지심귀명례'의 법회는 내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워 신심으로 충만케 했고 법당 한 가득 올려 퍼지는 반야심경의 물결은 저 우주까지 달을 듯 장엄하게 넘쳐흘렀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국을 건너 한국의 석굴암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등 총 34개의 석굴사원군으로 이루어진 엘로라 석굴 관람으로 우리들의 인도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부처님 나라라곤 하지만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년을 함께한 도반들이 있어 더욱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은혜를 갚고 스스로 등불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여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어른 스님, 대중 스님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나마스테!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에게 경배합니다.”



▲ 엘로라 석굴

## 날마다 감사합니다

보원 / 사미니파



꽉 차인 나무들 사이로 울긋불긋 곱게 단풍이 물들었다. 들녘에는 하심이라도 하는 듯 잘 익은 벼 이삭들이 황금색 고운 빛깔의 수를 놓았다. 그런 들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철없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생각나 멋쩍은 웃음을 짓게 된다.

몇 해 전이었다. 바쁜 절 생활로 열심히 뛰어다니던 나는 이런저런 평계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해 거르기 일쑤였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지.’라는 오만한 생각마저 품고 있다 보니 먹는 것에 관심조차 가지 않았다. 그렇게 굶는 것을 예사로 여기며,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나.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절에 들어오는 공양물을 귀한 줄 모르고 소홀히 여기곤 했다. 그러면 어느 날의 일이었다.

공양하던 나는 갑자기 일이 생겨 밥상을 내버려 둔 채 급하게 법당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법당으로 향하던 나의 발걸음이 자석에라도 이끌린 듯 순간 한자리에 멈추어 서게 되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법당을 가려면 온사 스님의 방을 지나가야 하는데 방 앞 광경이 나를 멈추게 했던 것이다. 스님께서는 쌀알을 한 틀 한 틀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입으로 후~ 후~ 먼지를 불어내셨다. 그리고는 당신의 방 옆 귀퉁이에 신문을 깔고 그 위에 아주 정성스럽게 쌀알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아닌가! 흐뭇해

하시는 온사 스님의 모습은 인자하다 못해 무언가 일깨워주는 커다란 울림으로 나의 기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평소에 온사 스님께서는 반 토막 나거나 조금 상한 쌀 등을 버리지 않고 순수 주워 모으셨다. 그것으로 무얼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던 것이다. 스님의 모습을 본 순간 철없던 나의 행동이 부끄러웠다. 먹기 싫어서 그냥 지나치고, 맛없다고 싫어하고, 배부르다는 평계로 남은 음식을 소홀히 했던 지난날의 내 어리석은 모습을 생각하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 듯 온사 스님께서는 멍~하니 서 있는 나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셨다. 죄송한 마음에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어색한 미소가 흘러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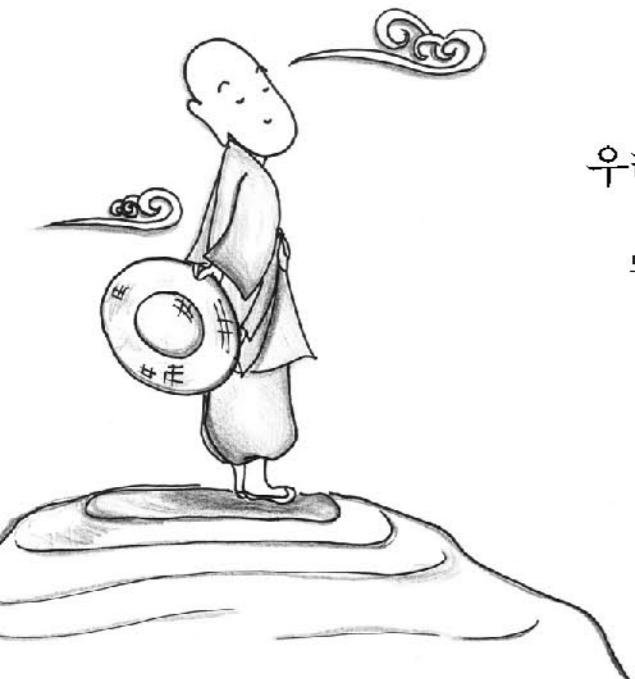
‘일미칠근(一米七斤)’이란 말이 있다. 쌀알 하나를 만들려면 농부가 일곱 근의 땅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다. 쌀알 한 알 한 알이 모두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신고 다니는 신발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꾀와 땀이 어린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 한 방울,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 등 일체를 아껴써야 한다. 하물며 수행자가 취하는 시주물의 은혜는 더 밀해 무엇하랴. 그런데 나는 시주의 공덕을 잊은 채 어리석게도 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을 덮고 도 남을 만큼의 큰 복이 있어야만 스님이 된다.’ 했는데……. 공양물을 소홀히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저절로 참회가 되었다. 타끌 모아 태산이라 하듯, 이렇게 시주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내 수행의 힘도 차곡차곡 쌓이리라. 먼훗날 누구의 삼배에도 부끄럽지 않을 미래를 그려본다. 감사하고 아끼고 소중히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한 끼의 공양부터 모든 물건을 감사하며 아껴 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길이요, 자비를 나누는 길이란 생각이 듈다.

그 날 이후로 나는 공양을 할 때면 오관계(五觀偈)를 관(觀)한다.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니  
내 조2만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을 다스려서 온갖 욕심을 버리고  
마른 몸을 유지하는 좋은 약으로 생각하여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양물을 받을 때면 “상공시방불(上供十方佛),  
중공제현성(中供諸賢聖), 하급군생품(下及群生品)”이  
라 하며, 시방의 부처님과 모든 현인과 성인, 일체  
의 유주무주 중생에게 그 감사함을 전한다. 두 손  
모아 이 마음 다해 “날마다 감사합니다.”라고. ●





## 우리의 발전

도준 / 사집과

손가락을 꼽아가며 기다리던 쉬는 날! 나는 북대암에 오른다.

바랑 메고 밀짚모자 놀러쓰며 나선 길. 덧발에 빽빽 익은 고추와 고추잡자리를 보니 가을도 깊어지나 보다. 작년 이맘때, 장군평에서 탐스럽게 잘 익은 흥시를 따 먹었던 기억이 난다. 아~ 달콤한 흥시. 역시 가을은 풍성하다. 기분 좋은 빨걸음으로 북대암 산신각 뒤편 큰 바위에 올라서서 운문사를 내려다 본다. 두 손 모으고 “운~ 문~ 사~!”하고 크게 외친다.

단풍으로 둘러싸인 운문사! 자연과 하나인 운문사! 참으로 아름답다.

지난날 삭발염의하고 진정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을 세우고, 운문사에 첫발을 내딛던 날을 회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피어난다.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시작된 운문사 생활. 200여 명의 대중 스님과 웃고, 부딪치고, 행복해하다 보니 모난 마음은 둥글어지고 속세의 묵은 때는 점점 씻겨나간다. 사집이 되어 발농사를 지어보니 알 것 같다. 수행은 부처님 말씀으로 영양 주고, 물 주고, 번뇌의 잡초를 제거하며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마음 빛’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부처님은 “진정한 발전이란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발전이나 쇠퇴가 일어나든 그것이 지혜의 득(得)이나 실(失)이 아닌 이상은 진짜 발전도 쇠퇴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출가 전 짏다르타 왕자였을 때 이미 부와 명예, 학문과 기예, 무술 등 모든 것을 습득하고 이루셨다. 이른바 세상에서의 행복이라는 조건은 다 갖추고 계셨지만,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출가를 하셨고 미침내 최상의 행복을 이루셨다. 그리고 통찰의 지혜를 가진 자들만이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 또한, 진정한 발전은 업의 결과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녔을 때 이루어지며, 지혜 계발은 업의 작용에 대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통찰 지혜의 심원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각자가 온 힘을 다할 책임, 즉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셨다.

새해가 되면 매번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이 나곤 했다. 하지만, 후회와 반성으로 다시금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고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한다. 그런 가운데 만나게 되는 부처님의 말씀은 나의 가슴에 서서히 젖어든다.

치문 첫 철 소임으로 종두를 살게 된 덕분에 온 도량의 사정을 빨리 알게 되었다. 도반 스님과 대중 스님을 돋는다고 애를 쓰다 보니 ‘오지랖’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열심히 살고, 누군가를 돋는다는 것이 나와 도반에게 있어 언제나 좋은 결과를 주거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작은 변화를 발전이라 착각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진정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지혜와 현실에서 오는 부딪힘, 약한 신심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이 실천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물거품으로 돌아갈 땐 주저앉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꾳꼿이 일어나 원력을 세우고 세상살이에 진실 되고 진지하게 맞서 지혜의 길, 깨달음의 길, 최상의 행복으로 가는 길 위에 다시 힘찬 빨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오늘도 새벽을 여는 도량석 소리에 맞춰 발원을 한다.

“시방의 모든 제불보살님과 대중 스님, 시주 단월님, 일체 유주무주 생명에 감사합니다. 지혜로서 말하고 지혜로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모두가 날마다 행복하소서.”라고 말이다. 그리고 함께 한 이 아름다운 도량 운문사에서 너와 나, 우리가 모두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처님과 같은 지혜 속에서의 진정한 발전을 말이다. ●



## 삶의 행복

편집부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삶의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어떠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움직입니다. 무심코 하는 일상의 행동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힘찬 하루를 열어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을 힘차게 살아낼 수만은 없습니다. 가끔은 휴식이란 것이 필요하고 그 휴식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휴식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자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고 삶에 대한 열정과 행복도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휴식에서 세상 어느 한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밀려듭니다. 재가자들의 행복은 일상입니다. 가정의 화목, 자식들의 성공, 편안하고 즐겁고 여유 있는 삶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등의 모든 것을 뜻 합니다.

그렇다면 출가 수행자들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게으르지 않고 항상 戒 · 定 · 慧 삼학을 닦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고 따르면서 철저히 수행하고 자기 내면을 닦아 나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등의 번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본래 있는 줄 알았던 번뇌를 모두 부처님께 바치고 나면 번뇌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삼보에 귀의한 출가자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수행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기 위해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와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비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비심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이며 항상 즐거운 마음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막아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경허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나오는 보시인 복전의 씨앗을 잘 뿌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어느 것 이든 씨를 뿌리지 않고는 수확할 수 없습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수확물을 얻기까지 적절한 날씨와 힘 없는 노력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보시로 말미암아 맑은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진실에는 말과 행동이 함께해야 합니다. 맑은 거짓과 꾸밈없는 좋은 말,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합니다. 늘 진실 속에서 지혜로운 삶, 정성스런 삶을 산다면 수행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이처럼 자비심과 복전의 씨앗을 심고 실천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질 것입니다.

깨끗하고 드넓은 가을 하늘을 보면 나의 좁은 마음이 드러나고,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황금 들판을 바라보면 굽어 있던 내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그 마음들이 맑고 높은 하늘과 황금 들판의 가을 풍경을 통해서 넉넉해지는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풍성하고 여유로운 가을의 인심처럼 바르고 선한 마음을 나눠 보십시오. 우리의 가슴 속엔 행복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복한 마음으로 근수(勤修), 정진(精進)하여 불도를 이루고 일체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대서원을 세운다면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지혜롭고 정직하며 꾸준히 노력하여 실천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 이루시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시간을 멀리 잡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작아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말이다.

어제의 나는 이기심을 가진 존재였지만  
오늘의 나는 이기심을 덜어낸 새로운 존재다.  
하루하루 아름다워지는 당신이 부처다!



▲회성당 재건축 상량식



▲추석맞이 송편 빚기



▲주지 스님 대통령 표창 수상



▲미국인 교육자 사찰탐방



▲종구일제

## 운·문·소·식

- 9월 7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8월 26일~9월 8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39기 행자교육에 학감 스님은 교수사로, 을원생 도용 스님, 일혜 스님은 습의사로 다녀왔습니다.
- 9월 11일 회성당 재건축 상량식이 있었습니다.
- 9월 12일 오백전에서 '국태민안을 위한 오백나한 백일기도' 임재가 있었고, 대웅전에서는 학장 스님이 임재법문을 해주셨습니다.
- 9월 13일 고추 따기 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9월 17일 '환경·생태·생명의 4대강 살리기'에 대한 환경부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8일~20일 화엄반 스님들의 졸업여행을 위한 신중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1일 추석맞이 송편 빚기 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9월 24일 치문반 스님들의 첫 논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7일 제39차 운문사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학장 스님 법문집 출판 기념회가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일 재무 스님과 화엄반 스님이 15박 16일간 인도 성지순례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화사에서 열린 '필공산 僧市'에 사교반, 사집반 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5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32주년 자연보호 현장 선포 기념식'에서 진성 주지 스님께서 환경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 10월 14일 만세루에서 고춧잎 따기 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10월 14일~15일 미국인 교육자 12명이 사찰탐방으로 운문사에 방문하였습니다.
- 10월 16일重九日祭가 조사전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1일 2010 울산 차문화 축제 제1회 국제차학술세미나에 화엄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시회 '고려불화대전'에 어른 스님과 대중 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29일 가을철 첫 自恋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4일 학인 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7일 '불교인이 본 기독교'라는 주제의 호진 스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9일~10일 겨울준비 김장 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12일 가을철 포살을 청풍료에서 봉행합니다.
- 11월 15일 대교반 스님들이 대구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합니다.
- 11월 18일 가을철 두 번째 自恋와 종강을 합니다.

## 도와주신 분

- |           |           |           |           |
|-----------|-----------|-----------|-----------|
| • 묘각 스님   | • 이기태 불자님 | • 안동 대원사  | • 김지영 불자님 |
| • 윤상태 불자님 | • 김경애 불자님 | • 권혁창 불자님 | • 서인석 불자님 |
| • 이진성 불자님 | • 최용호 불자님 | • 최동인 불자님 | • 활수진 불자님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2-8834(FAX 겸용)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1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자 격 : 1. 2010년 가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39기 이전)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모집인원 : 사미니파 00명

■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반명함판 사진(장삼·단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죽계 수지자는 제외)

■ 모집기간 : 2011년 1월 7일(음력 12월 4일)~1월 22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 2011년 1월 2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 2011년 1월 23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통편 :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승가대학 학장 명성 · 주지 진성

## 운문사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 모집대상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2011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 모집인원 : 00명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사진(4×5) 3매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및 필기시험

■ 전형일시 : 2011년 1월 2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승가대학 신입생 및 율원생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http://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보현율원 윤주 명성 · 율원장 홍륜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14호·2010년 11월 11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학/발행인·영성(전임호)/고문·일진·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해운·편집위원·장주·선준·덕재·증진·법수·자석·지원·현건·영조·선문·사진·증호·삼학·도일·승이  
컴퓨터·덕해·편집디자인·미디어 (02)2285-3366

